

NEWS

한일경제협회 소식

■ CONTENTS

협회사업 상반기 개최실적

- 제35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 2016. 2. 17 ▣
-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 2016. 5. 16~5. 18 ▣
-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 2016. 3. 8~3. 9 ▣
- 제9회 일본경제포럼 ▣ 2016. 4. 15 ▣
- 2016년 신아시아산학관협력 포럼 ▣ 2016. 5. 24 ▣

협회사업 하반기 개최안내

-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2016. 7. 12~7. 14 ▣
- 한일산업인재육성사업(제23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2016. 7. 29~8. 3 ▣
- 제1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2016. 8. 30~9. 2 ▣
- 제2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2016. 10. 12~10. 14 ▣
- 하반기 주요 한일협력사업
 - 한일축제한마당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안내

특집(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요 발표자료)

-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개회사
-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개회사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빈인사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조연설
- 유명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특별강연

기획기사

- 2016년 엔화환율의 3대 변동 요인
- 新아베노믹스와 공급능력 강화
- 2016년판, 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 개요

일본경제동향

신규 회원사 소개

한일 통계

- 한일 교역·인적교류 현황 통계

회원가입 안내

한일경제협회 소식 제34호

발 행 인 | 김 윤
편집위원장 | 이종운
편 집 위 원 | 조덕모·김정호·홍소영
간 사 | 서광현·이유경
발 행 |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18-4
한일재단빌딩 4F
TEL/ 02-3014-9888
FAX/ 02-3014-9899

인 쇄 인 | 강봉선
인 쇄 | 웃고문화사
강원도 원주시 배말길 103-2
TEL/ 033-748-6577
FAX/ 033-748-5477

한일경제협회 제35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김 윤(金 鈞)(㈜삼양홀딩스 회장)]의 제35회 정기총회가 2월 17일(수) 오전 11시 30분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장단회의(이사회)에는 김 윤 (주)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하여, 이윤우 삼성전자(주) 고문, 김희용 동양물산기업(주) 회장, 우석형 (주)신도리코 회장, 이휘령 (주)세아제강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주) 사장, 이일규 베스트웨스턴코리아 회장, 손봉락 (주)TCC동양 회장, 이수철 (주)알티 회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주) 회장, 이상준 (주)화인 대표이사, 최우각 (주)대성하이텍 대표이사, 이수현 삼남석유화학(주) 사장,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박남숙 교세이국제특허정보(주) 대표이사, 이승호 법무법인세종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금번 회장단회의 부의안건으로는 2015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5회 정기총회 개최(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삼환기업(주) 최용권 회장을 제외한 우석형 (주)신도리코 회장, 이휘령 (주)세아제강 사장 등 현 임원 전원을 재선임하고, 추가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금번 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아울러 협회의 사업방향으로는 2016년을 한일우호·경제협력 원년으로 정하고, 새로운 50년에도 한일이 서로 손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그 동안 쌓아 온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며 한일 양국 경제계의 보다 긴밀한 교류 및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성황리에 폐막

—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요! —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간 경제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해 나가고자 1969년 설치 이후 매년 한 번씩 양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한일 간의 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본회의는 한일 간의 여러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48년간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개최되어 오고 있는, 한일간 민간회의 중 가장 대표적인 경제회의이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이후 첫 해인 올해를 ‘한일우호·경제협력 원년’으로 정하고, 새로운 50년도 한일이 함께 손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2016. 5. 16(월)~18(수) 일본 호텔오쿠라도쿄에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한국측에서는 김윤 단장 등 136명,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등 182명, 합계 318명의 양국 경제인이 참가하였다.

새로운 50년을 향해 한일 경제계가 협조하여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에 공헌하기 위해 아시아 경제통합주도,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미래성장분야 협력, ICT연계 정보통신·관광분야 협력, 차세대교류와 문화교류확대 등 5대 핵심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동일본대지진 5주기를 맞아 일본 전 국민에게 또 한 번의 슬픔을 안긴 구마모토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표명 및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회원사 명의로 지진성금 700만엔(약 7,500만원)을 일본측에 전달하였다.

이번 경제인회의에서는 양국 경제계가 힘을 합쳐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아시아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하고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한일 양국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유익한 회의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가(菅) 내각관방장관 예방



누카가(額賀) 일한의원연맹 회장 예방



하야시(林) 경제산업대신 예방



기하리(木原) 외무부 부대신 예방



VIP 상견례



개회식 전경1



개회식 전경2



구마모토 대지진 성금 전달식



(개회사)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내빈인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조강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내빈인사) 호시노(星野) 경제산업대신정무관



(내빈인사) 누카가(額賀) 일한의원연맹 회장



(기조강연) 미무라(三村)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경과보고) 아소(麻生) 일본측 চে어맨



(경과보고) 안종원 한국측 চে어맨



(리셉션 건배인사)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제세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제세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특별강연 유명환 김안장법률사무소 고문



제2세션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제2세션 홍정국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 고문



양국 단장 폐막식



양국 단장 공동 기자회견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잡고 경제·인재·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국교정상화 51주년을 맞이한 2016년 5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에서는 김 윤(金 鈞) 단장 등 136명,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단장 등 182명이 참가하였다.

【51년간의 한일협력】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정치적 갈등,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지만, 양국 경제인은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을 맞이한 올 해까지 한 번도 중단하는 일 없이 한일경제인회의를 지속 개최해 왔으며, 오늘 제48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간 한일관계의 정치적 냉각 속에서도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서울에서의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나아가서 한일상공회의소회장 회의, 한국 전경련·일본 경단련·양국 경제협회 공동 심포지움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일의 관계개선을 꾀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작년 11월 2일에는 절실히 갈망하던 양국 정상회담이 실현되었다. 민간의 입장에서 양국의 관계개선 분위기조성에 진력해 온 기업인들로서는 양국 정부 관계자의 결단에 의한 정상회담 실현을 크게 환영하며, 본 회담개최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가일층 긴밀화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중국경제의 불투명성, 에너지·자원가격 하락에 따른 기존 경제 질서의 불안정성 및 북한의 거듭된 도발행위 등에 양국 경제인은 강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때일수록 양국 경제계는 경제연계의 강화와 인재교류 및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의 우호확대는 물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양국 협력에 의한 인프라 수출 등을 증대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일본대지진 5주기를 맞이하며】

일본에 크나 큰 피해를 입힌 동일본대지진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 아직도 17만 여명의 국민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열심히 복구·부흥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하여 한국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큐슈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번에도 한국정부·국민으로부터 위문·구호물자를 받았다. 일본의 경제인은 한국 정부, 국민들의 광범위한 물심양면의 지원과 깊은 우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본 경제인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표명되었다.

【향후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의 한일협력】

양국 경제인은 국교정상화 51주년인 올 해, 다시금 선진국으로서의 자각을 새로이 하며,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도 밀접하게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일 경제계가 협조하여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공헌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1. 한일 양국이 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

양국 경제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경제권’ 형성, 나아가 아시아지역 전체의 경제통합을 향해 한일 양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양국 경제인은 올 해 2월 4일에 12개국에 의해 서명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이 참여하길 희망한다. 또한, 나아가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의 조기체결을 향해 향후에도 서포트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양국 경제인은 향후 자원개발·인프라수출 분야에 있어 양국 그리고 제3국이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업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금융분야에서도 한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제3국에서의 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환율·투자 등 일련의 경제정책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 정부에 현실적이고도 적절한 운영을 요망하기로 했다.

3. 미래 성장분야의 협력

저출산 고령화는 양국 공통의 사회적 과제이며 장래에는 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다. 양국 경제인은 고령자 의료·요양보호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핵심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의료·요양보호 기기의 개발, 요양보호 인재의 확보와 교육, 시설운영 등에 대한 아시아 각국들의 협력을 얻는 것을 포함한 폭 넓은 정보의 공유, 국제 규격화 등에 있어 협조할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협조와 해결을 위한 노력이 성장전략이 됨을 인식하고, 양국 경제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 분야뿐 아니라 다른 미래지향기술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메리트가 있는 공동연구 및 R&D 네트워크 구축을 향하여 기술표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4. 정보통신·관광분야에서의 협력

양국 경제인은 양국에서 연간 600만 명이 왕래하는 요즈음, 양국 관광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ICT를 활용한 연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5. 차세대교류와 문화교류의 확대

양국 경제인은 다음 한일관계 50년을 짚어질 차세대의 교류와 문화교류에 의한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 심화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청년인재육성사업/한일고교생교류캠프 및 한일대학생미래회의를 지속하고, 또한 일본기업의 문화이해에 도움이 되는 주한 일본기업에서의 한국 대학생 인턴십 및 차세대 중소기업 젊은 경영자 교류를 충실히 하기로 했다. 매년 가을에 양국에서 각각 개최되는 한일·일한축제한마당은 양국 기업의 지원 등으로 작년 참가자 수가 과거최대를 기록하였으며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에 걸 맞는 행사가 되었다. 이러한 차세대교류 및 풀뿌리 문화 사업을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 촉진에 연결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하기로 하고, 더 많은 교류의 확충·발전을 향해 양국 정부의 이해와 지원을 기대한다.

[차기 회의 개최]

다음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6년 5월 18일

한국측 대표단 단장 김 윤
일본측 대표단 단장 佐々木 幹夫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산업, 무역, 투자 등 공통과제에 대해 정보공유 및 문제점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며, 한일경제인회의에 논의 의제를 상정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로서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오고 있다.

금번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지난 3월 8일(화)~9일(수)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측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안종원 비상근부회장(사조동아원(주) 고문)을 포함하여 35명, 일본측에서는 아소시멘트(주) 아소 유타카 회장 등 38명이 참가하였다.

양국 위원들은 2016년을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미래지향적 새로운 한일 협력 관계(新 한일파트너십)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1세션에서는 “아시아세기에 있어서의 한일 신시대”에 대해, 2세션에서는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테마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이 한일정상회담 및 장관급 회의의 의제로 상정되도록 정책을 건의 하였다.

제1세션 한국측 발표자인 복득규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일 양국은 무역, 투자, 제3국 공동진출 등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해왔지만, 경제환경 변화로 무역, 투자에서 R&D로 협력관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한일 R&D 네트워크구축방안(서비스 사이언스 네트워크, 신산업 표준 네트워크, 벤처

생태계 네트워크)으로는 한일 모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R&D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고 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측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께서 ‘미래 신성장산업과 한일협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은 시차를 두고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중국의 추격등 공통된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제회복 등을 위해 위축된 교류를 복원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일협력의 가능성으로는 양국의 핵심성장정책 중 협력 가능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밖에 제1세션 질의응답에서 경제협력이 단순히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기술분야·관광 분야·서비스 분야 등으로 매우 폭이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R&D 협력부문에 있어 펀드 등을 이용해 시드머니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R&D를 통합하는 형태의 기구·제도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코멘트도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다카다 코디네이터가 회의에 처음 참가했던 12회 회의와 지금을 비교하면 인재 교류 측면에서 다양한 교류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12회 회의 당시 발표자로서 인턴십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이 역시 실현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국 협회에서 실행해 온 인재교류 대상자의 정보가 담긴 막대한 DB를 활용하여, 향후 한일협력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회의는 우리 경제인이 정치 문제에 앞서 양국의 경제·문화·인재교류의 협력을 위하여,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만들고, 액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

매우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평가받았으며, 본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은 5월에 개최된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되어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본회의 전경



한국측 주최기관 : 안종원 চে어맨(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국측 주최기관 :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이수철 한국측 코디네이터



제1세션 : 복득규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제2세션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개최결과 ◀

- 한일경제인회의 논의의제 상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로서, 한일 간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6년을 「새로운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미래지향적 새로운 한일협력 관계(新 한일 파트너십)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제시 - 관계전문가의 논의사항 등이 한일정상회담 및 장관급 회의의 의제로 상정되도록 정책건의
 - ① 향후 한일 양국의 협업분야(공동 R&D, 의료·요양보호, 바이오·제약, 방재·환경, 우주개발, 신재생에너지, 관광, 물류 등) ②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서비스 사이언스, 신산업 표준, 벤처 생태계) ③ 한일 양국 공통의 위협요소(고령화, 중국의 추격)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고령화 산업의 상호 인허가 및 시장정보의 DB 상호 활용, 기술금융협력) ④ 한일 차세대교류 확대(고교생·대학생·인턴십, 차세대경영자교류 등) ⑤ 제3국 공동진출 강화(자원에너지, 인프라건설, 제조업 등)
- 지난 50년간의 한일경제연계·발전 등에 대해 회고해 보고,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협력방안(한일 간 R&D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
 - 한일 경제연계·발전의 발자취 - 지난 50년간 한일 양국의 경제연계는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자금 제공 →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 한국에서의 한일기업 합작 → 제3국으로의 한일 공동진출의 4단계로 구성 - 한일 공동사업 수는 세계 20여개국에 40건 이상에 이르며, 이와 같은 협업은 자원조달력 강화, 리스크 세어, 마케팅 강화 등에 있어 효과적
 - 그동안 한일양국은 무역/투자/신흥국 공동진출 등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해 왔으나, 경제환경 변화로 무역/투자에서 R&D로 협력관계의 고도화가 필요
 - 서비스 사이언스 네트워크·신산업표준 네트워크·벤처 생태계 네트워크
 - 한일 양국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정부 : 한일 R&D 네트워크 구축 지원정책 추진, 동아시아 R&D 네트워크 구축 선도, 지재권 강화
 - 기업 : 개방형 플랫폼 구축, 생태계 구축, 동아시아 시장진출 협력
- 향후 50년을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 관계(新 한일파트너십)로 가져가기 위한 차세대인재·문화교류를 포함한 한일 상호협력방안과 함께, 미래신성장산업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방안을 제시
 - 향후 한일 경제·인재·문화교류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양국 경제협회에서는
 - 한일 양국 경제협회의 경제·인재·문화교류 중심의 3대 핵심교류를 융합
 -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대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교류를 추진
 - 한일 양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중국의 추격’이라는 공통적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 - 양국의 핵심 성장정책 중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효율적 - 합작투자, 제3국 공동진출 → 공동신산업 창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시장 선점이 필요
 - 한일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
 - ▶ 차세대 정보기술 ▶ 신개념 사용자 경험 ▶ 맞춤형 물류체계
 -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스마트 교통시스템 ▶ 맞춤형 wellness care 등

제9회 일본경제포럼



한일경제협회 이종윤 부회장

제9회 일본 경제포럼이 지난 4월 15일(금)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경닷컴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의 시대를 맞은 기업가, 경영자, 연구자, 학생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세계경제의 미래와 재테크 등에 관심 있는 유관기관 및 기업,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혼돈의 세계경제, 한중일 시장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강연을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도입 등으로 더욱 불투명해진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을 제 공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사)한일경제협회 이종윤 상근부회장은 “일본이 마이너스금리 도입을 비롯한 양적완화 정책을 쓰고 있으나, 일본은 펀더멘탈이 탄탄하므로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엔화강세로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은 모두발언에서 “9회째를 맞은 일본경제포럼은 세계경제의 틀 속에서 한국보다 경제·사회적으로 10~20년 앞서가는 일본경제의 변화상을 통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학술적 성격 행사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취업 성공하려면? 저성장시대, 일본시장에서 돌파구 찾자!’라는 주제로 제10회 일본경제포럼이 6월 29일(수) 개최예정이다. 

2016년 신아시아산학관협력 포럼

우리 협회에서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중일 환황해 지역간 교류를 촉진하고, 한중일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4일(화)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2016 신아시아 산학관 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신아시아산학관협력포럼은 오는 7월 중국 옌청시에서 개최 예정인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회의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

동 포럼은 (사)한일경제협회, (사)한국무역협회, (사)신아시아산학관협력기구,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한국산학연협회가 공동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중일 산업내 분업 ~ 전자상거래, 전기자동차, 물류, 산업단지, 환경에너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

로 ~’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약 100명이 참가하였다.

금번 포럼은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병행 프로그램인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과 ‘산업단지·특구협력 포럼’의 사전적 의견수렴의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중일 3국이 각각의 비교우위를 살려 상호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 내 분업구조(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중일 분업, 의료, 요양, 기능성 식품 동향과 한중일 분업, 신재생에너지 동향과 한중일 분업, 산업단지, 물류동향과 한중일 분업, 인재양성 및 한중일 지역교류) 형성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포럼이 되었다.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안내

— 중국 장쑤성 옌청시 —

2016년 7월 12일(화)부터 7월14일(목)까지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개최된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이 2001년에 만든 정부간 중요한 3국 지역협력 체제로 3국 환황해 지역 내 무역, 투자, 기술 등의 여러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강화와 개방형 환황해 경제권 형성, 공동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이다.

금번회의는 녹색·혁신과 개방·융합을 테마로 하여 환황해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이 녹색경제와 혁신성장을 공동 실현할 수 있는 신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3국 지역 간 경제무역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환황해지역 경제의 융합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 1:1 기업매칭 상담회가 신설되어 자동차부품, 에너지·환경산업, 로봇, IT 등 스마트 기계,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도에 이어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의 심화·확대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환황해경제·기술교류 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제15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요 □

일 시	2016년 7월 12일(화) ~ 7월 14일(목)
장 소	중국 장쑤성 옌청시(염성시)
테 마	녹색·혁신과 개방·융합
주최	한국측: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국측: 상무부 아주사
	일본측: 규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규슈경제산업국, 규슈경제연합회)
주관	한일경제협회, 장쑤성 상무청, 옌청시 인민정부

■ 주요일정(안)

날 짜	시간	주요일정	비고
7/12 (화)	전일	중국측 대표단 도착	17:00까지
	09:35—10:20	한국측 대표단 입국	연청 도착 OZ337
	11:40—12:10	일본측 대표단 입국	연청 도착 MU2885
	14:00—17:00	일본/한국측 대표단 산업시찰	
	18:00—18:30	중국측 내부 회의	회의동 2층 휘현홀[匯賢廳]
	18:30—20:30	3국 국장 VIP 만찬	회의동 2층 신록홀[神鹿廳]
	18:30—20:30	대표단 석식 뷔페	연회동 1층 금해안홀[金海岸廳] 연회동 2층 백화원[百花苑]
	20:30—21:30	3국 실무자 준비회의	회의동 2층 서학홀[瑞鶴廳]
7/13 (수)	09:30—12:00	3국 국장회의	회의동 2층 서학홀[瑞鶴廳]
	09:00—12:00	환황해 비즈니스포럼	회의동 1층 영빈A홀[迎賓A廳]
	09:00—12:00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협력포럼	회의동 1층 영빈B홀[迎賓B廳]
	09:00—12:00	환황해 산학관협력 대학총장포럼	연청사범대학교서관 학술보고홀[學術報告廳]
	12:00—13:00	대표단 오찬	연회동 1층 금해안홀[金海岸廳] 연회동 2층 백화원[百花苑]
	09:00—14:00	비즈니스상담회	연회동 1층 구룡홀[九龍廳]
	14:30—17:00	전체회의	회의동 1층 영빈홀[迎賓廳]
	18:30—20:30	연청시 인민정부 주최 환영만찬	회의동 1층 영빈홀[迎賓廳]
7/14 (목)	09:00—12:00	중국측 대표단 산업시찰	
	11:00—11:50	일본대표단 출국	연청 출발 MU2253
	11:20—14:05	한국측 대표단 출국	연청 출발 OZ338

※ 참가문의 : 홍소영 과장 02-3014-9881

한일산업인재육성사업 제23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안내

— 일본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초, 센다이 —

우리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글로벌 인재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활발한 경제교류를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양국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해 한일고교생교류캠프를 개최해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한일경제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가 주최하며, 주 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일본 외무성, 국토교통성에서 후원하는 금번 한일산업인재육성사업(제23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는 2016년 7월 29일(금)부터 8월 3일(수)까지 5박 6일간 일본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 호텔 칸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5년이 지난 재난지역의 부흥을 목적으로 미나미산리쿠초, (일사)미나미산리쿠초 관광협회의 협력을 얻어, 한일 양국 학생들에게 재난지역의 부흥현장과 일본 경제현장의 시설 체험 및 업무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한일양국에서 80명(한국측 40명, 일본측

40명)의 고등학생들이 혼성 8개의 팀을 구성되어, 5박 6일 동안 합숙하면서 일본의 실물경제를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지역활성화·관광진흥, 서비스, 요양복지, 농업에 대한 새로운 부흥, 지역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기획하고 발표하는 체험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양국학생 골든벨, 양국전통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각 팀에는 한일 양국어가 가능하고, 비즈니스 교육과정을 이수한 멘토가 1명씩 배치될 예정이며, 캠프 진행시 양국 학생간의 의사소통 역할 수행 및 사업아이템 구상·사업발표회 준비과정에서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캠프는 한일 양국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 촉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강화에 공헌하고, 창업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미래의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1회 한일학생미래회의 개최, 일본 후쿠오카

- 개최 기간 : 2016년 8월 18일 ~ 8월 22일(4박 5일)
- 개최 장소 : 포트 힐스 후쿠오카 (ポートヒルズ福岡)
- 참석 인원 : 31명(한국측 16명, 일본측 15명)

한일학생미래회의는 한일고교생 교류캠프 수료자들로 구성되어, 2007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11회째를 맞이한다. 한일고교생 캠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의 사회문제”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일 양국의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해결책 강구”라는 주제에 대해, 4박 5일간 연구,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1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안내

— 일본 도야마 —

우리나라 동해안 4개 자치단체 「대구·울산·강원·경북」와 일본 호쿠리쿠 「北陸3県 : 토야마(富山), 이시카와(石川), 후쿠이(福井)」지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2016년 8월 30일(화)부터 9월 2일(금)까지 일본 도야마 다이치 호텔에서 개최된다.

양국 간 산업 협력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양국이 교차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본 회의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첫 걸음’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일 양국 경제정책 및 산업현황

발표, 공통 협력·해결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고 양국 기업간 교류 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의 일본 진출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호쿠리쿠 셰어 톱 100대 기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회와 일본 호쿠리쿠 지역내 우수 산업시설에 대한 시찰도 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 제1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요 □

일 시	2016년 8월 30일(화) ~ 9월 2일(금)
장 소	도야마 다이치 호텔
테 마	새로운 50년을 향한 첫 걸음
규 모	약 130명(한국측 약 50명, 일본측 약 80명)
주 최	정부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민간 : (사)한일경제협회, 호쿠리쿠경제연합회호쿠리쿠AJEC
주요내용	• 한일 양국 경제정책 및 산업현황 발표, 공통 협력·해결 가능한 과제 도출 및 양국 기업간 교류 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양국 회원 지자체간 교류 분과회 실시 • ‘호쿠리쿠 셰어Top 100’과의 교류상담회 실시 • 산업시찰 : YKK, 릿첼, 고마츠정련, 나카무라토메공업 등

※ 참가문의 : 홍소영 과장 02-3014-9881

제2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일본 큐슈 후쿠오카현 이이즈카시 －

2016년 10월 12일(수)부터 10월 14일(금)까지 제2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일본 후쿠오카현 이이즈카시(노가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는 한국과 일본 큐슈지역의 지자체·경제단체·기업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쌍방의 자본, 기술, 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여 ‘무역, 투자 및 산업기술의 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촉진’을 목적으로

1993년부터 양국이 매년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금년은 양국의 헬스케어 산업 분야 및 제3국을 무대로 한 한일 의료요양보호 제휴 및 관광 인바운드 사업 등에 대해 발표와 논의는 물론 양국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한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병행 개최함으로써 일본 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 제2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요 ■

일 시	2016년 10월 12일(수) ~ 10월 14일(금)
장 소	후쿠오카현 이이즈카시(노가미 프레지던트 호텔)
테 마	헬스케어 산업, 의공학 제휴, 제3국을 무대로 한 의료요양 한일 제휴 등
규 모	약 120명(한국측 약 50명, 일본측 약 70명)
주 최	한국측: 산업통상자원부,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지자체, 관련 단체기관 일본측: 큐슈경제산업국, (사)큐슈경제연합회, (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지자체, 관련 단체기관
주요내용	•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현황, 지역 클러스터와 정책 소개, 공동 협력 가능한 방안 도출 및 논의 • ‘제3국을 무대로 한 한일 의료·요양·제휴사업’ 라운드 테이블 • 헬스케어 산업분야 관련 교류상담회 실시 • 산업시찰 : 에코테크노 2016 전시회, 야스카와전기로봇마을, 가호극장, 이이즈카 오토 등

※ 참가문의 : 홍소영 과장 02-3014-9881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 한국 서울 -

한일축제한마당은 지난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에서 시작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매년 열리는 최대의 한일문화 교류행사이다. 본 행사는 수만 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가는 최대 규모의 한일 교류행사이다. 한일 문화교류, 시민교류, 청소년 교류, 지방 자치단체 교류 등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축제를

통해’ 한일 문화의 차이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계기가 되어, 어떠한 악천후에도 항상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등대같이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축제가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미래를 향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일축제한마당 개요

일 시	2016년 10월 2일(일), 10:00~19:30
장 소	코엑스(COEX) B홀
테 마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주 최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실행위원회
주 관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운영위원회
후 원 (예 정)	○ 한국측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서울특별시, KBS,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 일본측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일본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서울재팬클럽(SJC),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 참고: 2016년 한일축제한마당 행사의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omatsuri.kr/korean/index.asp>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하반기 사업안내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담당자
기술 경영 혁신지원	1. 국내 중견·중소기업 현장 기술자들의 일본어연수 및 일본 기업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본 기업과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 2. 체계적인 모노즈쿠리(통합적 현장개선) 지도자 양성을 통해 제조현장의 창조적 장인 확산과 모노즈쿠리 시스템구축 지원으로 기업의 수익력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1-1. 중소기업 제조혁신 역량강화 지원 - 대상: 제조기업 베테랑 기술자(현장경력 25년 이상) - 장소: 일본 동경, 나고야/ 한국 지도기업 ○ 1-2. 일본기업현장기술연수 - 대상: 중소/중견 제조 및 서비스업 재직 기술자 - 장소: 일본 동경 등 ○ 1-3. 중소기업 제조 매커니즘 개선 지원 -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 장소: 일본 나고야 - 기간: 일본과정 4일(이론 및 실습)	○ 1-1. 중소기업 제조혁신 역량강화 지원 & 1-3. 중소기업 제조 매커니즘 개선 지원 - 부서명: 산업협력실 제조혁신 인재양성센터 - 이름/직위: 김도훈 팀장 - 연락처: 031-505-2442 ○ 1-2. 일본기업현장기술연수 - 부서명: 산업협력실 기업매칭팀 - 이름/직위: 장진욱 팀장 - 연락처: 02-3014-9845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한일 양국기업 간의 비즈니스, 기술 정보의 상호공유를 통한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의 비즈니스 교류협력 확대 촉진	○ 2-1. 한일산업기술페어 - 기간: 2016년 10월 27일(목) - 장소: 롯데호텔 서울 ○ 2-2. 나고야지역 비즈니스 산업협력단 - 일시: 11월 중 - 장소: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 2-3. 한일 차세대경영자 파트너십 구축 한일 양국의 2세 경영자 간의 교류를 통한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일시: 2016년 9월 말 ~ 10월 초 ○ 2-4. 청년인재 일본기업 매칭지원 - 대상: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	○ 2-1. 한일산업기술페어 & 2-2. 나고야지역 비즈니스 산업협력단 & 2-4. 청년인재 일본기업 매칭지원 - 부서명: 산업협력실 기업매칭팀 - 이름/직위: 장진욱 팀장 - 연락처: 02-3014-9845 ○ 2-3. 한일 차세대경영자 파트너십 구축 - 부서명: 일본경제연구센터 - 이름/직위: 전재용 팀장 - 연락처: 03-3014-9822
대일산업 통상협력	1. 일본의 경제 및 통상정보 등을 분석하고 교류협력회의 등을 통하여 전략적 대일통상협력을 추진 2. 산업통상협력 관점에서 한일 양국간 무역·투자·기술협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아젠다 발굴	○ 3-1. 대일통상연구 - 일본경제리포트 / 일본경제동향분석 산업통상정책연구 / 대일전략연구회 일본경제포럼 / 일본지식정보사이트 운영 ○ 3-2. 제3국 진출, 한일협력모델개발 - 협력방안 연구조사/협력프로젝트 조사	○ 3-1. 대일통상연구 - 부서명: 일본경제연구센터 - 이름/직위: 송성기 센터장 - 연락처: 02-3014-9821 ○ 3-2. 제3국 진출, 한일협력모델개발 - 부서명: 일본경제연구센터 - 이름/직위: 전재용 팀장 - 연락처: 02-3014-9822
일본 우수퇴직 기술자 유치	일본 우수 퇴직기술자를 활용한 기술지도 및 기술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등 기술력 증진을 도모	○ 4-1.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사업 - 지원대상: 중견·중소기업 - 지원분야: 제조업 생산기술 전 분야 ○ 4-2. 기술인재양성교육 - 모집대상: 중견·중소기업 임직원 - 교육진행: 2박 3일(합숙교육), 순차통역	○ 4-1.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사업 & 4-2. 기술인재양성교육 - 부서명: 산업협력실 기술지원팀 - 이름/직위: 장운중 팀장 - 연락처: 02-3014-9812
뿌리기업 장인경영 (모노즈쿠리) 일본연수	기술력 및 생산관리능력이 취약한 국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선진 뿌리기술 연수를 통해 기술력 및 생산관리 능력 향상	○ 5-1. 뿌리기업 관리자 장인경영 일본연수 - 대상: 뿌리기업 재직자 - 장소: 국내(경기도) / 일본(나고야) ○ 5-2. 뿌리기업 ICT활용 생산 프로세스 혁신 일본연수 - 대상: 뿌리기업 관리자(부장급 이상) - 장소: 일본(나고야, 교토, 오사카, 효고현 등) ○ 5-3. 뿌리기술 차세대 인재 장인경영 일본연수 - 대상: 마이스터고 뿌리기술 관련학과 재학생 - 장소: 일본(나고야시)	○ 5-1. 뿌리기업 관리자 장인경영 (모노즈쿠리) 일본연수 & 5-2. 뿌리기업 ICT활용 생산 프로세스 혁신 일본연수 & 5-3. 뿌리기술 차세대 인재 장인경영 일본연수 - 부서명: 산업협력실 제조혁신 인재양성센터 - 이름/직위: 김박 부장 - 연락처: 031-505-2443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한국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jc.or.kr/>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의 한국측 개회사

(사)한일경제협회
회장 김윤(金 鈞)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한일경제협회 회장 김윤입니다. 먼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한 달 전 구마모토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가 난 것에 대해서 삼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고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호시노 츠요시 경제산업대신정무관님,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사카기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단련 회장님,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한일 양국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공고한 한일경제협력이 절실한 시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지금의 세계 경제는 미국 통화정책의 변동성과 이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불안,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유가의 하

락, 테러발생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의 무역액이 12%나 감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 온도는 더욱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세계 각국은 통화의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도입 등의 방법을 통해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탈출구를 찾고 있으나 쉽게 극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경제는 이미 글로벌 구조 속에 얽혀 있어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침체를 극복하기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동반성장을 향한 전 세계적 공동보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경제와 문화, 인재면에서 다양한 교류 활동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약 4년 만에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지난 3월 말에는 미국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이 손잡고 함께 지나온 지난 50년을 회고해 보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 서로 win-win하는 관계였다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틀 속에서 우리 양국 경제인들은 금후 50년을 향해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동반 성장과 공동 번영의 시대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지속가능한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실현하여 명실 공히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어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런 인식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일이 현재보다 더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한국에 있어 일본이, 일본에 있어서 한국이 여전히 중요한 경제 협력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전 국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한일 간에 정착되면, 지난 50년간 한일 양국의 성장발전이 상대국의 성장 발전을 견인해 온 것처럼 금후 50년도 한일 간 상호발전을 더 공고히 하는 토대가 구축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 해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인 2016년을 새로운 한일 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데 우리 양국 경제인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지능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점과 일본의 장점을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제3국 공

동 진출에서 보듯, 한일이 새로운 미래성장 산업에서 양국 협력에 의한 공동 R&D 활동 및 인적 교류를 강화시켜 나간다면, 양국이 지금 같은 과도한 경쟁관계를 극복하고 일층 긴밀화된 한일 supply chain 구조 하에서 상생적 발전을 이루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작년 말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접 국가끼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ACE가 출범함으로써, 역내 교역활성화를 위한 체제가 형성되었는데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한일도 여기에 빨리 동참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타결된 TPP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발생됨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더욱 협력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본 회의를 통해서 제안된 사항들이 정상회담이나 경제장관회의의 아젠다로 상정되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win-win하는 관계임을 널리 확산하는 회의가 되기를 바라며 양국 경제인 여러분들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일본측 개회사

(일사)일한경제협회

회장 佐々木 幹夫 (사사키 미키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님,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님,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님, 그리고 한국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일본 정부대표 경제산업대신정무관이신 호시노 츠요시님, 중의원 일한의원연맹 회장이신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사카기바라 사다유키 회장님, 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아키오 회장님, 그리고 일본측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개회에 즈음하여 일본측을 대표하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한일경제협회 회원사로부터 지난 구마모토 대지진에 대한 성금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께서도 위로와 구호물자 등을 보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과 한국은 작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해를 맞이하였고 그 기념할 만한 해에 대망의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회담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양국간 여러 현안들이 해결 되는 등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우리 양국 경제인들은 이

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을 진솔하게 기뻐하고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경제인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국 관계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신 양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경제인회의는 국교정상화 51주년인 해에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경제우호의 새로운 원년, 새로운 50년을 위한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회의는 양국의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 테마와 관련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아시아와 세계에서의 한일협력입니다. 양국 경제인들은 지금까지 시종일관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다든지, 혹은 아시아 전역의 경제통합을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협조하고 이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도 참가하는 TPP는 아시아 경제통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TPP 참가에 대해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계시며 저희들은 한국의 참가 의향에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 한중일 FTA에 대해서도 양국 경제인들은

포괄적이면서 높은 수준의 FTA의 조기 체결을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тем는 한일 두 나라 기업들의 제 3국에서의 협업에 대해서입니다. 한일 두 나라 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고 제 3국에서 자원 개발이나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례가 지난 수 년 동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 경제인 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을 더욱 더 가속화시켜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도 양국의 정부 기관에서 제도 금융 제공이나 민간 금융 기관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공동과제에 대한 협력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양국의 공동의 사회문제이며 노령자, 특히 의료·요양 보호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양국은 폭 넓은 정보 공유, 국제 규격화 등의 분야에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초국경적인 대기 오염과 수질오염, 환경 문제에서도 두 나라가 협력하여 글로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тем는 인재·문화·관광교류입니다. 새로운 50년의 한일관계를 깊어질 양국 젊은 이들의 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한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 심화는 앞으로 한일관계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양국 협회의 주력 사업인 한일고교생교류캠프도 올해로 23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2천여명의 학생이 이

캠프에 참가했고 캠프 OB들은 대학생과 사회인이 된 후에도 자율적으로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 주한일본기업의 한국인 대학생 인턴십 제도 및 한일 중소기업 청년경영자 교류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차세대를 젊어지고 나갈 주인공들의 교류 사업은 양국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께서는 앞으로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교류입니다. 우리는 한일 축제한마당을 도쿄와 서울에서 매년 개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데 걸맞게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올해도 9월에 도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일본측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한마당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관광 교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총 600만 명이 한국과 일본을 오갔습니다. 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 콘텐츠의 확충이나 관광객의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서 두 나라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의 테마와 관련해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동안 여러분의 활발한 토의를 통해 내실있고 유익한 회의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의 개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ㄹ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의 한국측 내빈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周亨煥)



존경하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님, 사카기바라 사다유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님,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님, 호시노 츠요시 경산대신정무관님,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일 양국 경제인 여러분, 먼저 최근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들과 피해자 분들, 그 가족 분들에 대해 가슴으로부터 우려 나오는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해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향후 50년을 위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을 테마로 제48회 한일 경제인 회의가 이곳 동경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한일 양국간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98년 한일 파트너십 구축 이래, 한일간 문화 개방을

통해 한류 드라마와 일본 애니메이션 등 문화 교류가 활발하고 인적 교류도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년 1만 명에서 2015년에는 5,084만 명으로 5백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교역 규모는 국교정상화 당시 2억 2천만 달러에서 오늘날 700억 달러로 300배 이상 증가하여 서로에게 세 번째 교역 파트너로 성장하였고, 투자 관련해서는 3,000개가 넘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 있으며 그동안 400억불 정도를 투자하여 한국의 산업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양국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50년 간 소중한 동반자적 역사를 밟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50년간 한일 경제통상 협력이 더 번영하기 위해 양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한일 양국 경제인들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공동 성장과 나아가 동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호 투자와 교역의 확대를 통해 경제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2012년 이후 일본의 대한 투자가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고 교역액 역시 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한일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위축된 면도 있지만 양국이 노력한다면 이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3년 6개월 만에 재기된 한일 정상 회의를 계기로 어렵게 조성된 양국 관계회복의 모멘텀을 살려 먼저 양국 간에 서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이는 곧 기업간 교역 증가로 이어지며 투자와 교역 추세가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본 기업 입장에서 한국을 보면 작년 말 발효한 한중 FTA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누리면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대중시장 접근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는 틀로써, 한중 간에는 한중 FTA 이행 위원회 기술 장벽 검역 장관급 협의체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중 FTA 후속 서비스 투자 협상이 올해 하반기 중에 실시되어 서비스 분야의 대중 진출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욱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우수한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 투자자 보호 제도와 함께 전력, 통신, 교통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지진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일본기업의 애로사항이 노동 규제 개혁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규제 분야에 있어서도 신산업 분야는 규제 free zone을 도입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며 규제를 푸는 방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투자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일단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야만 하는 규제만 살려내도록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GDP

75.1%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 FTA 효과를 누리면서 미국 유럽 등 세계 시장에 보다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잘 활용하여 일본 도레이사가 한국의 새만금 산업 단지에 고분자 첨단소재 공장을 준공하고 스미토모는 여수에 고흡수성수지 제조공장 설립을 통해 중국 등 세계 진출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 역시 일본에 대한 직접 투자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참여한 TPP가 발효하게 되면 이를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일본 투자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일본의 발달된 인터넷 기반과 1억 3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를 대상으로 한 IT 분야의 진출도 유망합니다. 이미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한국 기업의 대일 투자가 활발해져 NHN의 라인과 같이 일본을 넘어 세계로 진출해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 상호투자를 통한 교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교역 자체의 확대를 위해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도 필요합니다.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관련하여 기존 산업은 표준과 인증, 규제를 상호 조화시키고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시험 성적서 인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면서 신산업의 경우 국제기준 제정에 양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를 주도함으로써 세계시장을 리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분야를 보다 다각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제조·부품소재분야에서 소비재,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분

아는 문화 콘텐츠와 교육, 금융, 의료, 관광 서비스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상호투자자와 교역이 활발해질수록 양국은 서로의 강점과 비교우위를 살려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양국의 경제협력 분야도 신산업, 에너지, 전자 상거래, 제3국 공동 진출 등으로 그 지평을 확대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모두 창의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성장 동력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산업분야의 육성과정에서 양국이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의료, 드론과 같은 첨단산업에서 규제 free zone 도입 경험 등 규제 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 국제 기준 설립에 있어서도 공조를 확대한다면 첨단 기술 도입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공동 R&D와 설비 투자, 인력 양성을 같이 한다면 더 큰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산업분야는 스마트 카, 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등과 같이 다양한 기술과 업종이 융합되는 특성상, 기업 혼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이종 기업들이 합종연행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 기회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게 융합 alliance를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일본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간 에너지 협력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양국의 후생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나아가 러시아를 연결하는 슈퍼그

리드를 구축하는 전력망의 연계 사업, 석유와 천연 가스 역내 거래 활성화와 해저 파이프 라인 연결, LNG 수확과 LNG 수입 시 구매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개선 및 공동 노력 등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협력사업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활성화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도 한일간 중요한 협력 분야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4위, 10위라고는 거대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의 유통 산업이 발달한 한국과 일본 기업이 보다 노력한다면 규모를 더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삼국은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는 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위한 협력을 보다 확대하여 한일은 물론 동북아 디지털 싱글마켓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소규모 소액 거래의 비중이 높아 통관 물류 비용의 절감이 중요합니다. 전자 상거래 상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 시스템, 국제 배송 추적 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해서 소비자 보호, 전자 결제 간편화, 과세의 명확화 등 적극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께서 합의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 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을 해야 합니다. 이미 인프라 플랜트 건설, 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한국 가스 공사와 미쓰비시 상사의 인도네시아 LNG 프로젝트, 대우건설과 미쓰이 물산의 모로코 석탄화 발전 프로젝트 등 한일 양국 기업이 상호협력하여 제3국진출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 인프라 플랜트 규모가 점점 초대형화됨에 따라 일국의 기업

과 금융 기관만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프로젝트 발굴 능력 및 자금 조달력과 한국 기업의 기술력 및 시공 능력을 결합하고 ADB, AIIB, 월드 국제 은행 등, 많은 국제 기구들을 활용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3국 공동진출분야를 스마트 헬스 케어, 문화 콘텐츠 등으로 보다 다양화해야 합니다.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는 양국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 유통망을 구축하기 힘든 소규모 기업들이 많아 양국 기업들이 함께 해외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케어 헬스분야도 한국기업에서 강점을 가진 IT기반 의료정보시스템과 일본의 세계적인 의료 장비 기업이 힘을 협력한다면 경쟁력 있는 제3국 공동진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일 양국간 협력은 한일중 협력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한일 양국, 나아가 한일중 3국의 협력 수준은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분야 세계2위, 세계3위, 세계10위를 차지하고 있는 3국이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과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틀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중 3국은 EU, 북미 지역과 함께 세계의 3대 축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 비중은 EU나 NAFTA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세계가 FTA를 통한 경제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한일중 FTA는 아직 협상 중입니다. 3국 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대 통합 시장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가 언젠가는 꼭 이루어 나가야할 숙제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산업 에너지, 전자 상거래, 제3국 공동 진출에 있어서 우리 한일협력력을 한일중협력으로 확대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투자확대를 통해 이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이 함께 서로 타협과 양보를 통해, 느슨하게나마 우선 동아시아경제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한일중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협상을 보다 가속화해야 합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2천년 동안 장구한 교역의 역사를 지닌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옛 조선 통신사는 한국과 일본을 두 개의 아름다운 옥구슬, 동료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고 또 빛을 서로를 반사해 비추면서 온 세상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두 개의 구슬과 같이 세상을 밝히려는 조선통신사의 바람처럼, 양국 경제인들께서 서로 도와 새 우호 관계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국 경제인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를 통해 양국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상호 의의가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양국 경제인들의 건승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㉞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의 한국측 기조연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朴容晩)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한데 모여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초청해주신 김윤 회장님, 사시키 미키오 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많은 일본국민 여러분, 구난과 복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지 고민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글로벌경제의 변화와 또 한일경제가 지속 성장을 위해서 더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약 10분여에 걸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순서입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세계경제동향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일경제의 도전과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국 경제성장 과제를 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세계 GDP 성장을 추세를 그려 보았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성장 전망이 낮아지면서 글로벌 저성장과 뉴 노멀 시대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성장추세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GDP 증

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다가 2000년대 이후 약하게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하락 추세와 최근의 반등 국면은 선진국 주도경제와 개도국 경제의 이원화, 즉, 디커플링 현상으로 설명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진국 경제의 성장 추세선입니다. 하락추세가 뚜렷합니다. 20세기 이후 세계성장을 주도하던 미국, 유럽 등 선진 경제권이 경제 성장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60년대에 5%대 성장으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재정 위기를 겪고 0%의 불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60년대 2% 가량으로 조금 더 낮게 출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 하며 현재도 2%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인도, 아시아 등 신흥국들의 성장 엔진은 아직 식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이제야 성장 엔진의 예열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 모두 역으로 성장했던 추세선이 2000년대에 들어 대단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인도, 아시아 등 많은 신흥국들은 뒤늦게 경제 개발에 뛰어들며 아직까지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변화가 2000년대 이

후에는 세계 경제의 반등세를 전인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 추세입니다. 한국은 고도 성장기를 거친 이후 지난 10년간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는 선진국형 저성장에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의 성장 경로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여 년 전부터 앞서 살펴본 선진국형 저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한국의 많은 분들이 한일 경제를 비교합니다. 한국과 일본경제의 모습이 닮아간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은 그만큼 한일경제가 공유하고 있는 경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특히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노동과 자본, 제도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 경제에 내재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 시장입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의미하는 생산가능 인구를 보면 일본은 이미 감소 추세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추세와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월드뱅크는 30년 후 생산가능 인구가 13억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500만명 일본은 2000만 명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상하듯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19%입니다. OECD의 34개국 중 34위를

기록 중입니다. 일본은 1.43%입니다. 26위를 기록해서 역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본입니다. 한일 경제 모두 자본 투자에 의한 성장은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1인당 자본 축적의 수치를 보면 한국은 102천 달러, 일본은 129천달러로, 미국, 독일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자본 축적이 늘어날수록 자본의 한계수익률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공장을 더 짓고 인프라를 늘리는 자본의 축적 투입만으로는 양국이 추가성장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섰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도 경쟁력입니다. 양국은 모두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소득수준에 비해 제도경쟁력이 아직도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대 인데 비해, 제도 경쟁력은 1만 달러대 국가의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대이지만, 마찬가지로 제도경쟁력은 2만 달러대 국가들의 평균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양국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경험적으로 대부분 국가 경제는 S자 성장경로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는 성장의 변곡점을 보이는 **reformal break** 단계, 그리고 성장이 안정화되는 **steady state** 단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steady state**에 들어선 미국의 경우에는 저성장국면이 들어선 이후에도 US 싱글엔진으로 세계경제를 떠 받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2% 안팎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경제 구조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

는 단계로 9% 대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한국과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안정적 저성장기반을 마련하여 2-3%대 지속 성장을 만들어 낼지, 아니면 더 이상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현재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정체될지 앞으로의 선택이 양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성장과제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한일 투자 협력을 통한 신흥국 진출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장기 추세로 보면 세계의 성장이 신흥국에 의해 반등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성장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뒤쳐져 있는 제도 경쟁력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자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일협력의 기회는 수출시장보다는 투자 시장에 있지 않나가 생각됩니다. 현재 세계 무역 시장의 파이는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차이나 인사이드를 앞세워 제조업 지급률을 높이고 최종자 수출을 늘리고 있어서 동북아의 무역 시장은 국가간 비교 우위를 활용한 분업과 협력의 구조에서 치열한 경쟁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 시장은 이제 레드 오션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양국 협력 문제를 투자 시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의 인프라 개발에 협력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자원이나 에너지분야로 편중되어 있는 협력을 소통, 사회기반 시설 등 첨단 인프라로 늘려 간다면 한일 양국이 성장하고 신흥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 교육규제 등 취약한 제도를 성장단계에 걸

맞게 보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로 보입니다. 특히, 노동 시장은 효율성 제고가 시급합니다.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여성에 대한 활용을 높이는 등 우리가 개선 방향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로드 블록들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양국 모두 사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리더십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도 컨텍스트 교육이 중요합니다. 콘텐츠 중심, 학벌 중심의 교육 현장은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지출은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1위, 일본이 2위입니다. 이는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시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스위스 대학 진학률은 44%에 불과해서 한국의 69%와 일본의 52%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지식 노동자의 고용 비율은 51%로 한국의 21.3%와 일본의 24.3%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경쟁 경로의 분산에 있다고 합니다. 대학 진입 장벽을 높이는 대신에 비대학자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더욱 넓히고 대졸자와의 임금 격차를 축소시킨 제도적 장치가 오늘날 스위스 경쟁력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기업의 창의 및 혁신을 가로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드 이코노믹 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 규제 부담 항목에서 한국이 전체 140개국 중 97위에 있었고 일본 역시 54위로 경제력의 수준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가급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사전 규제는 사후 규제로 바꾸고 복합 규제는 원샷 규제로 바꿔서 규제의 근본 틀을 개선하여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기업사이드의 혁신입니다.

한국은 하면 된다는 **can do spirit** 정신, 또 일본의 메이지정신은 과거 고도성장의 기반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젠 세계시장에서 그 매력이 약해지고 있는 느낌은 사실입니다. 글로벌 기업가 정신 지수를 보면 한국은 28위, 일본은 33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비즈니스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에는 끈기와 근성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것을 충분히 연구하되, 우수한 역량을 지닌 기업을 찾아 끊임 없이 협업하는 유연성과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기업 경영의 소프트웨어라 불리는 기업문화부터 바꿔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많은 문화의 일면들 상명하복의 지

시 형태나 여성에 대한 차별, 불필요한 야근 등 아직까지 양국의 기업문화는 딱딱한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과학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과학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더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국을 둘러싼 경제 변화와 함께 고민해 볼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타이모 히토리와 우마까라즈(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서 먹으면 맛을 느낄 수 없다) 이 말처럼 한일이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교류하고 또 함께 협력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공동 번영과 희망의 길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의 한국측 특별 강연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前 외교통상부 장관·주일한국대사 유 명 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제가 시간을 갖고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주신 일본측 사사키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김윤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말씀 드리고자 하는 소위 코리아 시큐리티 리스크라고 할까요?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외국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한국의 안보 리스크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는 분들을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 기업하는 분들은 너무 안보 리스크에 무관심한 아주 극적인 대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 경험을 넣어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특히 한국 안보 리스크라고 하면 북한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장기적인 단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앞으로 한 4, 5년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노상 비행기를 타시겠지만 비행기에 기장이 지금 에어터블런스(기압 불안정)가 있으니까 시트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라는 안내 방송에 비추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

다. 물론 비행기는 안전하고 아무런 지장 없이 목적지에 착륙을 할 것입니다만 시트벨트를 좀 착용하고 앞으로 4, 5년을 지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5월 6일 제7차 북한 노동당 당대회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일본신문에 크게 일면 톱으로도 났습니다만 아사히 신문에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은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36년만에 열린 당대회에서 저희들은 북한이 혹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했습니다만 조금 실망스럽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3대 세습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을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핵 경제 병진 정책이라는 핵무기 개발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하겠다 이걸 어떻게 보면 망상에 불과합니다. 영어로 Pipe dream. 그렇지만 이를 영구적인 정책으로 선언을 또 했습니다. 시대 착오적인 그런거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북한이 사실 상 과거에는 7개년 경제 계획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7개년, 5개

년 경제 계획을 한 것은 1980년에 제7차 경제 7개년 경제계획을 기획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7개년 경제계획도 실패해서 3년 연장해서 10년이 걸렸습니다만 결국은 북한 스스로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당대회 자체는 36년만에 열렸는데 이는 이런 경제계획을 발표한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김정일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당대회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金正일은 그런 당대회를 열지 못했고 다시 그 아들 3대세습에 들어와서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국가가 나아갈 미래를 제시하기 보다는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인사를 봐도 비서국을 없애고 정무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존 연로한 지도층을 그대로 다시 임명을 한걸 보더라도金正일은 당분간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지금 피폐해진 북한의 경제를 살리려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金正일은 스스로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을 답습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유교사회에 있어서 나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을 통치하는 정통성에 부족하다는 그런 스스로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金正일은 이미 당을 장악하고 있고 군도 장악했고 행정부, 정부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은 지금 다시 최룡해에게 맡긴 것 같고 군은 황명서가 관여를 하고 있고 내각은 전 박봉주 총리를 경질할 줄 알았더니 다시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박봉주는 2009년에 화폐 개혁 실패로 일단 숙청되었다가 다시 기용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새로운 국가 발전계획에 따른 인사를 하

지 못하고 자기권력 기반만을 강화하는 그런 당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실질적인 것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생활모습을 보면 지금金正일은 생각하는 그런 북한하고 사실상은 많이 괴리가 있고 그런 괴리는 더욱 넓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배급체제는 벌써 오래 전에 붕괴가 됐고 시장에 소위 그걸 영어로 ALLEY마켓이라고 하고 야미시장, 일본말로 야미이치바, 우리는 골목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4백여개 이상 영업을 하고 성업중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은 대부분 시장을 이용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소위 도매업을 하는 계층이 생기고 그런 사람은 돈을 벌수가 있고 평양에는 1~2%에 불과하지만 부유층이 생겨 그들은 달러, 유로화, 북한 돈으로 사치스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2009년 화폐 개혁 실패 이후에 화폐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야미시장, 암시장에서의 달러와 공식 환율의 차이가 80배 이상이고, 북한의 평양 아파트가 얼마나 그러면서 사실상 사고 판맙니다. 가격을 달러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말에金正일은 인민을 위해 만든 물놀이장 이라든가 오락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달러만 받고 입장을 시켜준다고 이러한 것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현상을 보면 김정일의 생각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생활모습은 상당히 변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고 또 그런 바깥의 영향으로부터 고립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는 중국계 핸드폰 밀수가 이루어지고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

하고 북한 주민들과 직접 전화통화도 되는 상황이고 또 27,00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과연 지금 상태로 얼마나 지속되겠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2013년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engagement정책(포용정책), 한반도프로세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협력력을 추구한다는 정책을 취하고 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4차 핵실험을 보면서 지난 18년동안 유지됐던 engagement policy를 완전히 버리고 봉쇄정책으로 큰 정책 전환을 했고 심지어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2월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에 당면할 것인가 양자 택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등의 engagement는 하지 않겠다는 엄청난 정책변화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 북한이 이렇게 핵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약속을 하거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긴장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상이 안 좋으니까 시트벨트를 조금 잘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면 오바마 정권이 들어와서 2008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고 2009년부터 북한과 어떤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해 오바마가 프랑크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려는 그 찰나에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하고 해서 그때부터 미북대화가 진전이 될 수 없었어요. 그 때 미국으로서는 지난 20년동안 제네바합의 이후에 계속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cheating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한하고의 대화를 할 그런 의지가 희박해져 결국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는 것을 했죠. Strategic patience라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그걸 발표를 하고 쪽 유지가 됐습니다. 특히 오바마 2기에 들어와서 다시 클린턴이 그만 두고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를 하려는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2012년에 미북 간 합의를 북한이 보름도 안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미사일 실험을 함으로써 더 이상 미북 대화는 단절이 된 거죠. 앞으로 금년 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다시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미국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 현재로서는 당선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북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비핵문제에 중점을 두듯이 미국 역시 상당한 대북 강경책을 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반도 전략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해 계속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재기되든 4자회담이 되든 강경정책을 취하면서도 대북협상의 여지는 남겨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 시피 평화와 안정, 대화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진핑은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시진핑이 들어와서 벌써 2번의 핵실험을 했죠. 그리고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만 김정은은 이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

문에 중국으로서도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이 중국에 전략적 이해를 해친다는 생각 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당분간은 유엔 제재를 확실히 이행함으로써 김정은을 교훈을 시키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하나의 완충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제재를 하기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대화 모드로 돌아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글로벌 전략도 한반도에서 큰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기 때문에 시트벨트만 **tighten** 하고 우리가 지나간다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두 걱정하는 것이 북한이 무모하게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2010년 천안함, 또 연평도 폭격 같은 그런 도발을 함으로서 본이 아니게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언론에 크게 보도 되지 안됐습니다만 사실 연평도사건 이후에 한미 간에 군사당국 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책변화는 작년 봄에 한미 군사당국 간에 북한이 군사도발을 할 경우에는 같이 합동으로 보복을 한다. 물론 **proportional** 비례적인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북한이 군사적도발을 하더라도 우리 한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거라는 걱정을 안했지만 지금부터는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군사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

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러한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최대로 큰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모든 전략자산을 다 동원해서 한반도에 전결했습니다. 제일 가공할 무기가 소위 **F22** 랩터라는 전투기입니다만 김정은을 직접 타격해서 제거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하고 북한에 상륙을 하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항상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하면 우리가 반격하는 그런 구상으로 훈련을 하였는데 지금은 이를 완전히 버리고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주한 미군이나 한국을 공격할 징후가 있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전략기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는 아주 강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금년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불만을 한 것은 **B51** 전폭기, **B2** 스텔스, 그리고 핵 항공모함, 일반 핵잠수함 등의 모든 전략 자산을 다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한 것은 중국입장에서는 이것이 북한에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중국을 겨냥한 소위 군사훈련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물론 미국도 상당히 불만을 표시한 게 있습니다만 한국의 입장으로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억제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이 더욱 절박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대한 신뢰, 일본에 대한 믿

음이 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으로서 작년 10월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중국의 전승절 간 이유를 설명했는데 안 갔을 경우 시진핑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미국에 대한 신뢰, 일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불확실한 북한 정세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조만간

한일 간에 GSOMIA라는 군사비밀보호 협정도 체결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고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은 더 증대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반도 안보리스크에 대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걱정은 하시되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시트벨트만 잘 착용하고 계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2016년 엔화환율의 3대 변동 요인

- 닛케이 신문은 2016년 엔화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3가지를 주목
 - 첫째,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로서,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와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속도가 빠를 경우, 엔저는 가속화
 - 둘째, 유가동향으로서 유가가 더욱 하락하는 경우, 엔저의 가속화를 어느 정도 저지
 - 셋째, 중국경제의 향방으로서, 중국경제의 감속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커질 경우, 리스크 회피형 엔고 반전 가능성이 큼

- 2015년 12월, 9년 6개월만의 미국의 금리인상, 유가하락, 중국경제의 계속되는 감속 리스크,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으로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이 심한 변동을 보이면서 2016년 일본 외환시장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음
- 닛케이신문은 2016년 엔화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3대 요인에 주목하면서 엔화환율 동향을 분석

① 미일 간 금리차 확대와 엔저

-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점은 미일의 금융정책으로서, 엔화환율은 미일 간 금리차와의 연동성이 높음
 - 통화의 신용력이 비교적 높은 선진국 간에는 금리가 높은 통화 쪽으로 자금이 흐르기 쉽기 때문인데, 이 금리차를 크게 좌우하는 것이 금융정책임
- 일본은행은 1월 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예금금리의 일부를 마이너스 0.1%로 인하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결정

- 일본은행이 정책목표로 제시한 소비자물가상승률 2%의 달성시기가 유가하락의 장기화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미일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엔화환율이 엔저·달러고로 전환
- 앞으로도 엔화환율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
 - 일본은행은 가일층의 금융완화도 불사한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음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1월 29일 열린 금융정책결정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질/양/금리의 3차원 모두에서 추가완화가 가능함을 강조
 - 실제로 추가완화에 착수하면 앞으로도 엔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미국 FRB의 금리인상속도도 주목됨
 - 이차원완화로 대량 자금공급을 계속하는 일본은행과는 대조적으로, FRB는 양적완화를 끝내고 작년 12월부터 금리를 인상

- 현재 연간 4차례의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연초 환율이 불안정했던 상황에서 1-2차례밖에 실시할 수 없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FRB의 금리인상 횟수가 많을수록 미일 간 금리차가 벌어져 엔저가 가속화되기 쉬어짐
- 금년에는 FRB가 발신하는 금리인상을 둘러싼 언동도 엔 환율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임

② 유가하락과 엔고

- 엔화 환율은 금리차이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바, 두 번째의 주목점이 바로 엔과 달러의 수급임
 - 특히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상황을 나타내는 경상수지의 동향이 중요시됨
 - 경상흑자는 일본에 유입되는 자금이 많은 상황을 의미하는 만큼, 엔 매입 압력이 걸리기 쉬워짐
 - 역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엔 매도 압력이 걸리기 쉬운 상태를 나타냄
- 경상수지의 구성요소 중 가장 영향이 큰 것이 상품거래를 나타내는 무역수지임
 - 현 상황을 보면, 원유수입가격의 저하로 2015년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비 80%나 감소
 -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원유수입 확대에 의한 대규모 무역적자로 엔 매도 압력이 강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유가하락으로 오히려 수급면에서 엔고의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

③ 중국 리스크와 엔화환율

- 세 번째 주목 점은 세계경제의 악화위험이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중국 변수임
 - 연초 이후 금융시장은 중국 주가와 유가의 급락으로 시장참가자들의 리스크 회피적인 태도가 평소와는 달리 강해지고 있음
 - 중국정부가 즉흥적인 대응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동요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다만, 리스크 회피 국면에서 엔이 매입되기 쉬운, 즉 엔이 리스크 회피용 통화로 선호되는 명확한 이유는 없음
 - 이와 관련하여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 증권이 관계자는 리스크 회피를 위한 엔 매입은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면서, 리스크 회피용 통화라고 해도 엔 매입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
- 해외 투기세력들은 그동안 일본의 이차원 금융완화로 엔 매도를 확대해왔음
 -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커질 때는 엔고나 엔저의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
 - 이에 따라 엔을 되사는 쪽으로의 움직임이 리스크 회피형 엔고 진행의 한 원인이 됨
 - 일본의 국내 연금기금이나 생명보험회사, 투자신탁 등의 투자가들도 엔저에 맞추어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 세계적인 리스크가 높아지면 이들에 의한 엔 매입이 증가

- 바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리스크 회피형 엔고의 배경임
- 일본은 대외순자산국가로서,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커질 때에는 엔에 자금을 피난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견해도 엔고가 진행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연초 이후 중국경제 불안이 커진 결과, 투기세력들은 엔 매도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엔 매입도 늘리고 있음
- 최근에는 일본 주가가 엔 환율과의 연동성이 높아지는데 주목, 엔 매입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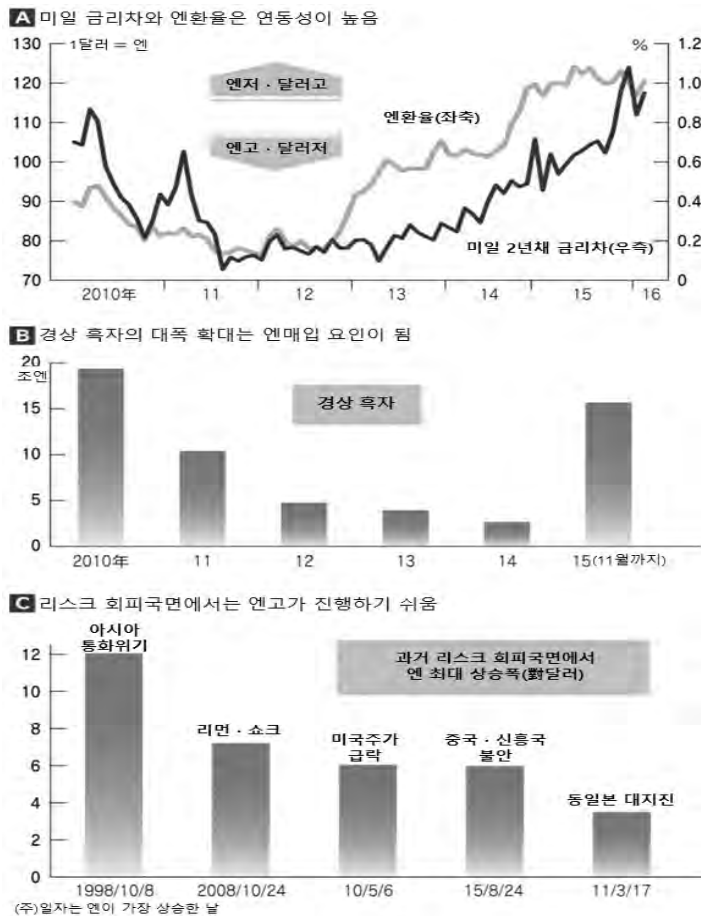
본주식 매도를 조합한 거래를 하는 투기세력들도 있음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2016년 1월 북한의 핵실험 시에는 주가하락에 따라 엔고가 진행되는 등 일본에 밀접하게 관련된 리스크 국면에서도 엔이 매입되기 쉬운 것은 주가하락과 연동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참고자료〉

닛케이신문(2016.2.3) 

〈참고 도표〉 엔화환율의 3대 변동요인과 엔화환율과의 관계



新아베노믹스와 공급능력 강화

* 이 자료는 미야가와 쓰도무(宮川 努) 가쿠슈인(學習院)대학 교수와 타키자와(瀧澤美帆) 미로 도요(東洋)대학 교수가 일본경제신문: 신아베노믹스의 가능성, 공급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낙관적인 전망 경계해야(2015.10.6)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수급 겹의 해소 원인으로서는 잠재성장을 저하
- 설비투자 침체로 인한 공급능력 부진
- 기업은 시장 변화에 따라 투자전략을 전환해야

□ 新아베노믹스와 새로운 3개의 화살

- 2015년 9월 자민당 총재에 재선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새로운 단계로 전개한다고 선언
- 이른바 새로운 3개의 화살이라 불리는 이 같은 정책이 실현가능할 것인지는, 이제까지 아베노믹스에 의해 어느 정도 일본경제가 개선되어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는가에 좌우됨
-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도 있어 간단치 않음
 - 예컨대, 당초 강조되었던 물가는 여전히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소비와 생산도 신통치 않고 결과적으로 GDP는 아베노믹스 실행 초기에 비하여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근본적인 비판이 일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노동시장의 호전과 엔저가 가져 온 기업수익임
- 新아베노믹스는 GDP 600조 엔이라는 목표에 상징되는 높은 성장력을 배경으로 저출산 대책과 내용이 충실한 사회보장을 꾀하려 하고 있음

- 그러나 명암이 교차하는 경제지표를 보는 것만으로 높은 성장력의 근거는 발견할 수 없음
- 이하에서는 일본의 잠재성장력을 재검증, 아베노믹스의 영향과 새로운 아베노믹스의 실현가능성을 분석

□ 잠재성장력의 저하 원인을 고려한 처방전 제시해야

- 아베노믹스에서는 첫 번째 화살인 대담한 금융정책과 두 번째 화살인 기동적인 재정정책은 실시되었으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충분하지 않았음
- 이는 아베노믹스가 총수요 진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이상한 것은 총수요자극책에 의해 수급 겹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기에 해소되고 노동시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증가폭은 아베노믹스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저조했다는 점임
-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공급사이드인 잠재성장력의 저하도 고려해야 함

-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력 저하는 노동 인구 감소에 의해 의한 것임
- 그러나 생산연령인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감소로 반전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특징은 아님
- 이 점을 고려하면 설비투자의 침체에 의해 자본축적 감소도 시야에 둘 필요가 있음

□ 新아베노믹스의 성장전망 근거와 문제점

- 노동력만이 아니고 자본축적도 침체된 공급능력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2%의 잠재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新아베노믹스는 중장기에 걸친 잠재성장력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기술진보율 달성을 상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버블 붕괴 후 일본이 이만큼 높은 기술진보율을 장기간 달성했던 적은 없고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전략도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일본정부는 과거 버블 붕괴 후에 발생한 부실채권문제를 바로 처리하지 않고, 대형 공공투자로 경기를 부양, 출생률을 높게 잡아 사회보장부담 문제를 뒷전으로 해옴
-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한 정부는 그 후 금융위기와 사회보장정책에 뒤늦은 대응 등을 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일본경제, 특히 재정에 큰 부담을 강요하고 있음
- 이번에도 높은 성장률 전망으로 의욕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노동시장만의 개선과 그 이유

- 왜 노동시장만이 개선되었는가 하면 기

업들은 총수요의 증가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자본의 증강보다는 노동력의 증가로 대응하려했기 때문임

- 이는 노동시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비율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점으로부터도 명확함
- 또 경제주체들이 이제까지의 아베노믹스가 장기적인 공급능력 저하와 동반된 단기적인 총수요증가책임을 알게 되는 경우, 장래의 물가상승기대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임

-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최근에는 양자의 수급 갭에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을지 모름
- 그러나 장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근년의 공급능력 침체를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음
- 2010년대의 자본스톡 증가율은 0.1%에 불과

□ 문제점 극복을 위한 과제

- 일본정부는 공급능력 강화를 위해 우선 개선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노동자가 능력에 따른 노동과 보수가 얻어지는 유동적인 노동시장을 정비하는 데 주력해야 함
- 기업도 수요증가에 대등한 종래의 설비투자방식을 지양하여 IT투자와 같이 노동력인구 감소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가운데 수익력을 높이는 투자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 지속가능한 일본경제를 지향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탄탄한 정책을 실행하는 외에 방법이 없음. ㉠

2016년판, 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 개요

- 산업경쟁력회의에서 '16.4.19일, 「2016년판, 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 초안을 발표
- 성장전략의 주요내용은 일본사회의 IT고도화를 지탱하는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고도 외국인재의 유치, 민간 일체로 추진하는 10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명목GDP 600조 엔의 달성을 목표

① 새로운 과제 해결을 추진

- 일본 산업경쟁력회의에서 '16.4.19일 차기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 초안을 발표, 5월 각의에서 의결할 예정
- 4년차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은 기존의 3개 화살로 엔고, 높은 법인세, TPP 타결 지연 등 일본기업에게 6중 고로 작용했던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
- 새로운 과제로서 ①명목 600조 엔 달성을 위한 새로운 유망성장시장의 창출·확대, ②인구감소사회 및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생산성의 근본적 향상, ③새로운 산업구조의 전환을 지탱하는 인재 강화 등을 설정

전략 프로젝트	주요 내용	수치목표
제 4차 산업혁명	자동주행, 로봇	2020년 30조엔
건강입국	데이터 활용, 의료 효율화	2020년 26조엔
환경투자	에너지절약 지원	2030년도 28조엔
스포츠 산업	시설의 다기능화	2025년 15조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물류의 효율화	2020년 410조엔
농업개혁	자재비용 절감	2020년도 10조엔
중고주택시장	자산평가시스템 구축	2025년 20조엔
관광입국	관광경영인력 육성	2030년 15조엔
공공시설 민간운영	공항 등에 특구활용	10년간 12조엔
소비 환기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	
규제개혁	행정절차의 IT화, 간소화	
인재 육성·활용	고급인력에 대한 영주권 완화	
TPP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2020년도 25.2조엔

- 아베 총리는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시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지금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

요한 분기점이다”면서 규제개혁과 인재육성 분야에 집중하여 성장전략 추진 -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짧은 3년 미만으로’ 검토

② 2016년판, 일본재흥전략의 주요 내용

1. 명목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한 「민간 전략 프로젝트10」

① 제4차 산업혁명(Society5.0) (IoT·빅데이터·AI·로봇)

【부가가치 창출 : 30조 엔(2020년)】

- 2020년 고속도로에서 자동주행, 즉시 오더메이드 생산, 스마트 공장, FinTech, 3년 이내 드론택배 실현
- 기업·조직 간 벽을 허문 데이터 활용 플랫폼 창출, 셰어링 이코노미, 사이버 시큐리티
- 중견·중소기업 지원(소형 범용로봇의 도입 코스트 20% 감소·중소기업 1만 개사를 중점적으로 지원) 등

② 세계 최첨단 건강입국으로

【시장규모 : 16조 엔(2011) ⇒ 26조 엔(2020)】

- 건강·예방을 위한 보험 외 서비스 촉진(4조 엔 시장 창출)
- IoT 활용으로 의료진단·개별화 의료·개별화 건강서비스(보험료 청구서·진진·건강데이터를 집약·분석·활용)
- 로봇, 센서 등을 활용한 간병 부담 삭감 등

③ 환경에너지 제약의 극복과 투자 확대

【에너지 관련 투자 : 18조 엔(2014년도)
⇒ 28조 엔(2030년도)】

- 산업 톱 러너 제도를 3년 이내에 전 산업의 70%로 확대, 중소기업의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추진
- FIT법 개정에 의한 국민부담 억제와 최대 도입의 양립에 의한 재생에너지 추진
- 자원안전보장의 강화
- 전력량 거래 시장의 창설(2017년), 연료 전지자동차의 본격적 보급 등 수소사회의 실현(2030년에 관련 투자 1조 엔) 등

④ 스포츠의 성장산업화

【시장규모 : 5.5조 엔(2015) ⇒ 15조 엔(2025)】

- 스포츠시설의 다기능화, 스포츠와 IT·건강·관광·패션 등과의 융합·확대 등

⑤ 중고주택 유통·리폼시장의 활성화

【시장규모 : 11조 엔(2013) ⇒ 20조 엔(2025)】

-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유통·금융 등의 시스템 구축, 인스팩션·하자보험 보급 등

⑥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 343조 엔(2014) ⇒ 410조 엔(2020)】

- 생산성 증가율을 2%로 배증
- 트랙·여관·슈퍼 등 7개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 틀, 고정자산세 감소, 지역금융지원 등으로 물류의 효율화 추진

⑦ 농업개혁·수출 촉진

【6차 산업시장 : 4.7조 엔(2013년도) ⇒ 10조 엔(2020년도)】

- 농지집약, 생산자재의 코스트 감소, 농산품의 유통구조 개혁
- 스마트농업(2020년 원격감시·무인자동주행), 산업계와 농업계 간 연계체계 구축 등

⑧ 관광입국

【외국인여행소비액 : 3.5조 엔(2015) ⇒ 8조 엔(2020), 15조 엔(2030)】

※방일외국인과 일본인 여행소비액 합계는 약25조엔(2015) ⇒ 29조엔(2020), 37조엔(2030)

- 지역관광경영 추진, 관광경영인재 육성, 광역관광 경로를 세계수준으로 개선, 국립공원 브랜드화, 문화재 활용 촉진, 휴가개혁 등

⑨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를 위한 가시화 프로젝트

- PPP/PFI 등에 의한 공적 서비스·자산의 민간개방 확대

【10년간(2013~2022)에 PPP/PFI 사업규모를 12조 엔으로 확대(재검토 중)】

- 「개혁2020」 프로젝트(자동주행, 분산형 에너지, 첨단 로봇 등)
- 공항 등에 특구 활용 등

⑩ 국민 연계에 의한 소비마인드 환기책 등

-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 등

2. 생산성혁명을 실현하는 규제·제도 개혁

○ 새로운 규제·제도개혁 메커니즘 도입

- 산업혁신의 미래상을 바탕으로 설정한 중기목표에서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로드맵 방식의 도입
- 사업자 시각에서 규제·행정절차코스트 삭감(규제개혁, 행정절차 간소화, IT화) 등

○ 미래투자를 위한 제도 개혁

-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강화(이사회 실효성 향상, 정보개시 등을 통한 건설적 대화 촉진), 무형자산·연구개발 투자 촉진 등

3. 이노베이션 창출·도전정신 넘치는 인재 창출

○ 이노베이션, 벤처 창출력 강화

- 기업에서 대학·연구개발법인에 대한 투자를 2025년까지 3배로 증가
- 국내외 톱 인재를 모인 세계적 연구거점 5곳 창출
- 인공지능연구개발의 사령탑(인공지능 기술전략회의) 설치

- 민간 주도로 「지역과 세계의 가교 플랫폼」 정비, 정부기관 합동으로 벤처 지원 컨소시엄 설치(정책 공동기획, 지원 중점화) 등
 - 다면적 접근에 의한 인재 육성·확보
 - 2020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IT활용에 의한 교육과정별 학습, 고등교육에서 수리·정보 교육 강화, 톱 레벨 정보인재 육성
 -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각료회의(가칭)」 설치
 - 세계 최단의 「일본판 고도외국인 그린카드」(고도인재 영주권부여 신속화) 등
 - * '17년 정기국회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출 예정
 - 성장제약 타파를 위한 고용환경 정비, 여성의 활약 등 다양한 인력의 참여
 - 장시간노동 시정을 위한 노력 강화
 - 대기아동 해소, 다이버시티경영 촉진 등으로 여성 및 고령자의 활약 촉진 등
4. 해외 성장시장 흡수
- TPP를 계기로 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개 지원
 - 【13.8조 엔(2013년도) ⇒ 25.2조 엔(2020년도)】
 - 인프라 시스템 수출 확대
 - 【약 16조 엔(2013) ⇒ 약 30조 엔(2020)】
 - 대내직접투자 유치 강화
 - 경제연계협정, 투자협정 체결 추진

[3] 평가

- 이시하라 경제재정·재생상은 수치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구상을 제시
- 이번 성장전략은 법인실효세율의 인하 등으로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이 정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성장시장의 창출확대에 주력하려는 것으로서 AI나 로봇,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에 대응한 스마트공장의 보급은 재고관리나 납기단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공장의 대체를 촉진케 함
- 소형무인기를 사용한 택배서비스나 자동차의 자동주행 등 관련투자도 늘어나게 됨
- 나아가 신기술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완화나 자금지원도 추진
- 30조엔의 시장규모를 목표로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도입을 추진
- 그러나 이번 발표된 성장전략 개요에 대해서, 노무라증권 관계자는 성장전략의 방향성은 좋으나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
- 산업경쟁력회의의 한 민간위원은 노동시장의 유동화가 필요하다고, 성장전략의 핵심인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하고 있음
- 성장전략 개요에서는 장시간노동의 삭감이나 여성 및 고령자의 취로 확대의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음
- 아베정권하에서 이제까지도 성장전략에서 제시된 메뉴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던 바, 5월의 최종발표 시까지 수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책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로 되고 있음

<참고자료>

제26차 산업경쟁력회의(2016.4.19) “名目 GDP600兆円に向けた成長戦略(次期「日本再興戦略」)【案】”, 닛케이신문(2016.4.20), 요미우리신문(2016.4.16.), 산케이신문(2016.4.20) ㉞

[동향보고]

일본 경제 동향 _ 2016년 5월

(1억 총활약 플랜)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4	2015	2015				2016			
			1/4	2/4	3/4	4/4	1/4	2월	3월	4월
경기동향지수 (일치지수, 2010=100)	-	-	-	-	-	-	-	110.7	111.2	-
GDP증가율(연율, %)	△0.0	0.6	5.4	△1.7	1.6	△1.7	1.7	-	-	-
국내투자	69.5	70.1	20.8	16.3	17.9	17.2	19.9(p)	-	-	-
민간설비투자										
(조엔)										
공공투자	24.5	23.4	6.3	4.1	5.0	6.1	6.6(p)	-	-	-
해외직접투자(조엔)	79.0	70.0	15.5	14.8	17.6	21.8	19.6	6.2	7.5	-
소비자물가 전기비	2.6	0.5	△0.3	0.2	0.0	0.1	△0.3	△0.1	0.1	-
상승율(%) 전년동기비	2.6	0.5	2.1	0.1	△0.1	0.0	△0.1	0.0	-0.3	-
실업율(%)	3.6	-3.4	3.5	3.3	3.4	3.2	3.2	3.3	3.2	-
수출(조엔)	73.1	75.6	18.9	18.8	19.0	18.8	17.5	5.7	6.5	5.9
수입(조엔)	85.9	78.5	20.4	19.1	20.0	19.0	17.2	5.5	5.7	5.1
무역수지(조엔)	△12.8	△2.9	△1.4	△0.3	△1.0	△0.2	△0.3	0.2	0.8	0.8
경상수지(조엔)	3.9	16.4	4.2	3.8	5.0	3.6	5.9	2.4	3.0	-
환율										
달러	105.8	121.1	119.1	121.4	122.3	121.5	115.3	115.0	113.1	109.9
원화(100엔)	996	935	923	905	957	953	1,043	1,060	1,052	1,044
금리(10년물, %)	0.55	0.36	0.34	0.40	0.40	0.31	0.051	0.015	-0.062	-0.092
주가(닛케이)	15,460	19,203	18,226	20,058	19,474	19,035	16,843	16,347	16,897	16,544

주: (p)는 1차 속보치 *실행액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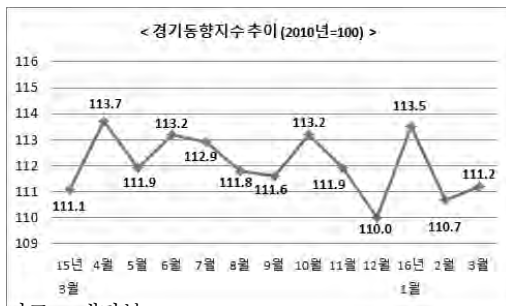
- (경기판단)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 '16.3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1.2로 전월비 0.5p 상승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 '16.3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8,235억 엔 흑자
 - '16.4월 수출은 5조 8,892억 엔, 수입은 5조 657억 엔
- (환율) 엔고 가속
 - '16.4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09.9 엔으로 전월비 2.8% 엔고
 - * '16.4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44엔으로 전월비 0.8% 엔저·원고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

□ (경기기조 판단)

- 부분적인 약세를 동반하면서 완만한 회복기조
 - 개인소비와 수출, 생산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설비투자는 약간의 회복 움직임
 - 기업수익은 신중한 업계현황 판단 하에서 완만하나 개선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도 개선



자료 : 내각부

- 3월 경기동향지수는 111.2로 2개월 만에 전월보다 0.5p 개선

□ (전 망)

- 향후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완만한 회복이 예상
 - 다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과 자원보유국들의 경기부진이 경기하강 압력으로 작용할 위험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구마모토 지진의 악영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
 - 수개월 후 경기상태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98.4로 전월보다 0.5p 악화

- 일본경제는 경제선순환의 기점인 소득환경면에서 볼 때, 기업수익의 호조에 따른 이제까지의 개선경향이 변조를 보이기 시작
 - 2016년 들어 지속되고 있는 엔고가 기업수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가계소득도 증가하기 어려워진 만큼, 소비부진이 보다 장기화될 리스크도 있음

<GDP>

- 일본 내각부가 5월 18일 발표한 2016년 1분기 GDP 성장률(속보치, 실질)은 전기비 0.4%, 연율 1.7%
 - 개인소비와 수출이 증가로 2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
 - 설비투자는 3분기 만에 감소하는 등 경기는 여전히 힘을 잃고 있음
 - 2016년은 예년보다 생산 일수가 1일 많은 윤년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제외하면 0%대의 성장률을 보인 셈
- GDP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0.2%. 이중 개인소비가 0.5% 증가, 2분기 만에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1.4% 감소,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반전
 - 신흥국 경제의 부진으로 인해 수주가 감소한 것 외에, 금융시장의 혼란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자세가 신중해진 점이 설비투자 감소의 주된 원인
 - 수출은 전기비 0.6% 증가함에 따라 외국의 GDP기여도도 0.2%. 특히 방일외국인들의 소비가 호조를 보여 GDP를 전기비 0.1% 증대시킨 효과가 있었음
- 2분기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론도 적지 않음
- 더욱이 일본경제는 경제선순환의 기점인 소득환경면에서 볼 때, 이제까지의 기업수익의 호조에 따른 개선경향이 변조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지적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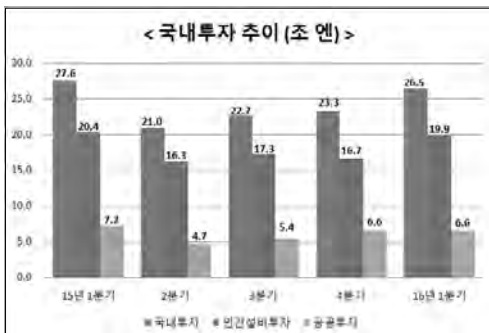
구 분	2014	2015	2014		2015				2016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전기비			△0.7	0.5	1.3	△0.4	0.4	△0.4	0.4
전기비연율	△0.0	0.6	△2.7	2.1	5.4	△1.7	1.6	△1.7	1.7
전년동기비			△1.5	△1.0	△1.0	0.7	1.8	0.7	△0.0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 2016년 들어 지속되고 있는 엔고가 기업 수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가계소득도 증가하기 어려워진 만큼, 소비의 정체가 보다 장기화될 리스크도 있음

〈국내 투자〉

- '16.1분기 국내투자 GDP의 21.2%
 - '16.1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공공투자: 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13.3% 증가한 26.5조엔



자료: 내각부

□ (민간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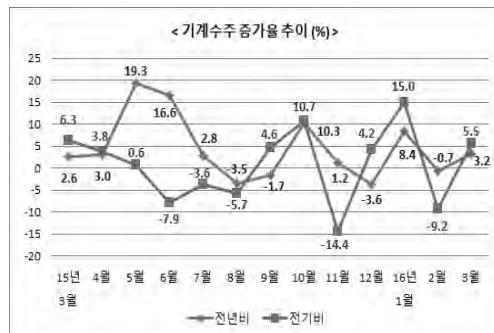
- '16.1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18.9% 증가한 19.9조 엔, 국내투자의 75.0%를 차지
 - 그러나 실질기준으로는 2분기 만에 전기비 1.4% 감소, 금년 초 이후 엔고와 더불어 기업들의 경기 불투명감 등이

투자에 악재로 작용

-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2016년 3월)에 의하면, 2016년도는 전 산업에서 설비투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과잉감은 개선되는 경향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3월 기계수주 증가율도 전월비 5.5%로 상승 반전

□ (공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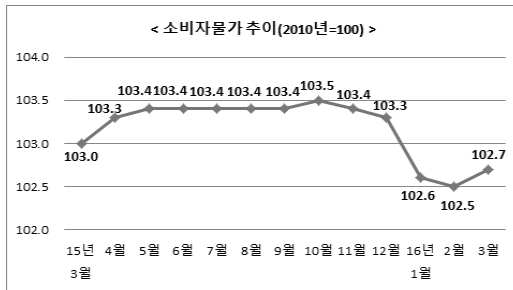
- '16.1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0.9% 감소한 6.6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4.9%를 차지
 - 최근 공공투자는 완만한 감소경향
 - 3월의 공공공사 거래액은 전월비 6.8% 감소
 - 그러나 2015년 12월에 결정된 3.3조엔 규모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구마모토 지진대책은 공공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자료: 경산성, 내각부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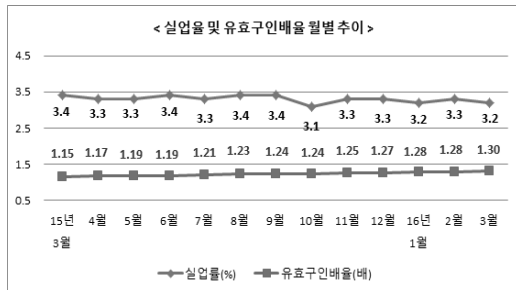
- '16.3월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 '16.3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2.7(2010년= 100)로 전월비 0.1%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자료 : 총무성

0.3% 하락

- 그러나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비 1.1% 상승
- 향후 물가하락에 대한 유가하락의 영향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하락의 영향을 제외한 물가는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



자료 : 후생노동성

〈실업률〉

- 고용사정 개선 지속
 - '16.3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개선된 3.2%
 - 15~24세의 청년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하락한 5.8%
 - 노동력인구와 취업자 수 및 완전실업자 수는 감소

- 16.3월 유효구인배율은 신규 구인 수의 증가와 함께 1.30배로 상승, 여전히 고용 수요의 증가를 반영
-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어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6년 4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순위	국가	2016. 3월			2016. 4월			2016. 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3,072	-5.1	7.3	12,005	-11.8	-8.2	48,548	-5.7
2	중국	11,161	-7.1	19.5	1,0352	-7.6	-7.2	39,452	-7.2
3	ASEAN	9,299	-13.4	10.4	8,823	-11.5	-5.1	34,279	-14.7
4	EU	7,903	12.1	16.5	7,025	9.9	-11.1	28,038	6.9
5	한국	4,392	-13.5	8.8	4,120	-14.2	-6.2	16,393	-13.5
6	대만	3,625	-8.8	18.9	3,313	-9.9	-8.6	13,330	-8.3

자료 : 일본 재무성

2. 무역수지 흑자폭 2개월 연속 확대

- (종합) 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 '16.4월 무역수지는 8,235억 엔 흑자로 전

월대비 흑자폭이 2개월 연속 확대
 - 수입의 감소가 흑자폭 확대에 기여
 - 對 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3,511억 엔에서 2,946억 엔으로 축소, 對 미국 무역흑자도 전월의 6,858억 엔에서 6,148억 엔으로 축소

〈2016년 4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2016. 3월			2016. 4월			2016. 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출	6.5	-6.8	14.0	5.9	-10.1	-8.8	24.0	-6.2
수입	5.7	-14.9	3.6	5.1	-23.3	-11.2	22.3	-17.4
수지	0.8	237.9	300.0	0.8	-	9.2	1.1	-

자료 : 재무성

- (수출) '16.4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6.4월 수출은 엔고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8.8% 감소한 5조 8,892억 엔
 -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8.0% 감소
 ○ 전월과 비교하여 5대 수출 품목 중 자동차부품과 반도체 등 전자부품간 순위가 바뀐 가운데, 자동차부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감소
 - 철강의 수출 감소폭이 -16.8%로 가장 큼
 ○ 주요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도 모두 감소
 - EU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11.1%로 가

장 큼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6.2% 감소

- (수입) '16.4월 수입도 금액, 물량 모두 감소
 ○ '16.4월 수입은 5조 657억 엔으로 전월비 11.2% 감소
 - 수입물량도 전월비 11.5% 감소
 -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데다,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감산 영향으로 원

〈2016년 4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순위	품목	2016. 3월			2016. 4월			2016. 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10,267	1.3	9.2	9,132	-6.7	-11.1	28,355	0.3
2	자동차부품	2,990	-3.3	13.1	3,062	-3.2	2.4	7,945	-7.0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3,087	-6.7	15.1	2,943	-10.8	-4.7	8,602	-9.1
4	철강	2,635	-28.6	9.3	2,192	-32.0	-16.8	7,356	-28.1
5	원동기	2,306	-10.5	11.8	2,043	-14.3	-11.4	6,108	-9.3

자료 : 재무성

- 자재수입이 감소한 것이 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
- 의류동부속품이 액화천연가스를 제치고 수입순위 2위로 올라선 것이 특징인 가운데, 의약품은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감소
 - 액화천연가스의 수입 감소폭이 -33%로 가장 큼

- 주요 지역·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모두 수입이 감소
- ASEAN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 -15.3%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전월비 11.6%의 큰 폭 감소

〈2016년 4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순위	품목	2016. 3월			2016. 4월			2016. 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4,679	-36.1	23.1	3,531	-51.8	-24.5	16,728	-41.7
2	의류동부속품	2,657	14.4	0.9	2,362	-15.4	-11.1	10,310	-7.3
3	액화천연가스	3,460	-43.7	-2.5	2,320	-44.5	-33.0	12,828	-47.3
4	의약품	2,014	-10.9	-28.2	2,209	-8.8	9.7	9,507	12.2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204	-17.6	8.8	1,949	-20.5	-11.6	8,565	-16.2

자료 : 일본 재무성

〈2016년 4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순위	국가	2016. 3월			2016. 4월			2016. 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4,671	6.3	11.5	13,299	-16.8	-9.4	58,049	-9.6
2	ASEAN	9,008	-16.9	0.7	7,654	-20.9	-15.3	34,626	-17.3
3	EU	6,835	-3.7	-4.0	6,175	-8.4	-9.7	27,328	1.4
4	미국	6,214	-20.0	1.2	5,857	-18.1	-5.7	24,062	-11.7
5	호주	2,749	-25.8	-1.0	2,524	-32.8	-8.2	10,979	-30.4
8	한국	2,280	-17.7	1.8	2,015	-30.2	-11.6	8,835	-21.4

자료 : 일본 재무성

3. 엔고가속·저주가·마이너스 금리

□ (주 가)

- '16.4월 평균 주가는 엔고를 배경으로 전월비 2.1% 하락한 16,547엔

□ (금 리)

- '16.4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일본 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영향이 사채·국채 시장에 본격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전월의 -0.062%에서 -0.092%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

□ (통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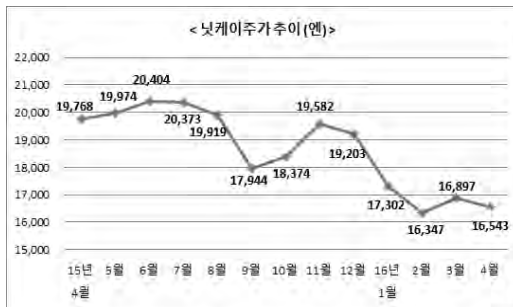
- '16.4월 본원통화(머니터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6.8%

□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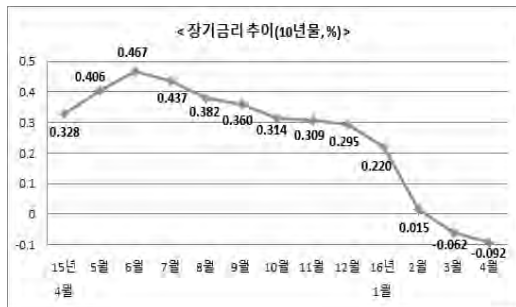
- '16.4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2.8% 하락한 109.9엔(엔고)
- '16.5월 들어서도 중순경까지는 107-108엔 대에서 엔고세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109-110엔대로 상승, 5월 24일 현재 109.3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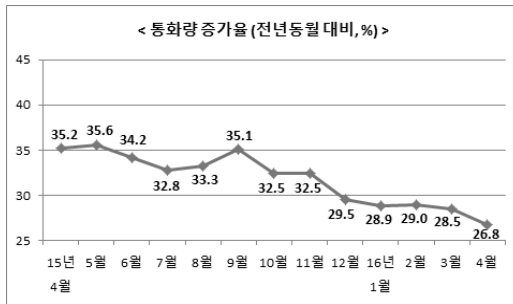
- 최근 미국 내 조기금리인상론 후퇴, 국제 유가하락을 배경으로 엔화매입·달러화 매도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국제적으로 자국통화약세화 경쟁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엔 매도 개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엔고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일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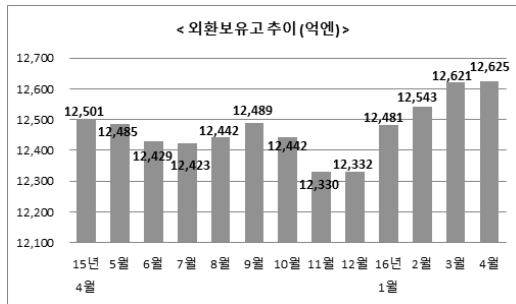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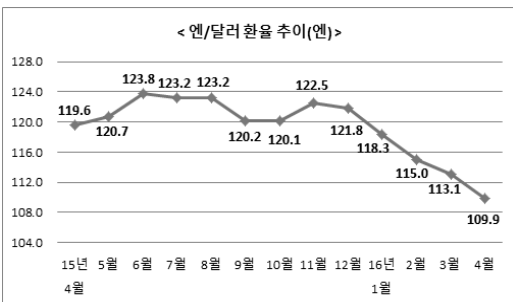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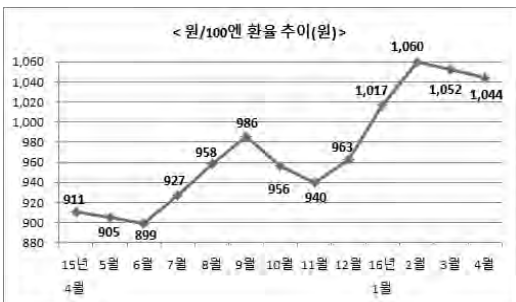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 추가 금융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엔저세로 반전될 전망
- '16.4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044원으로 전월의 1,052원에 비하여 0.8% 엔저·원고**

4. 해외직접투자 2개월 연속 증가

□ (동향) 최대 투자지역인 북미 지역에 대한

- 투자 호조로 전체 해외직접투자 증가
- '16년 3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75,273억 엔으로 전월비 22.1% 증가
- 對 미국 직접투자는 3조 4,650억 엔으로 37.1% 증가
 - 對 중국 직접투자는 1,192억 엔으로 22.8% 증가
 - 對 한국 직접투자는 267억 엔으로 36.9% 증가
 - 對 유럽 직접투자는 2조 8,469억 엔으로 2.4%의 소폭 증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2015	2015			2016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월	2월	3월	1-3월
금 액		696,396	147,919	176,072	217,554	196,248	59,326	61,649	75,273	196,248
증가율	전기비	-11.8	-4.5	19.0	23.6	-9.8	-22.8	3.9	22.1	-
	전년동기비	-11.8	-30.8	2.8	9.7	26.7	11.9	31.7	36.8	26.7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국가별	2015				2016					
	금액	증가율	4분기		2월		3월		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대세계	696,396	-11.8	217,555	23.6	61,649	3.9	75,273	22.1	196,248	-9.8
아시아	141,593	19.0	32,004	-25.0	6,803	-17.2	7,828	15.1	22,851	-28.6
중 국	14,659	1.1	3,823	2.4	971	-4.4	1,192	22.8	3,179	-16.8
한 국	4,714	-20.6	1,193	2.0	195	-24.7	267	36.9	721	-39.6
북 미	237,283	-2.9	88,902	50.7	25,355	16.6	34,650	36.7	81,748	-8.0
미 국	230,435	-2.9	87,905	51.7	25,030	16.7	34,327	37.1	80,800	-7.8
중남미	22,758	49.4	6,214	30.1	613	-25.9	2,134	248.1	3,574	-42.5
유 럽	269,749	-30.4	85,022	32.1	27,811	3.6	28,469	2.4	83,122	-2.2
대양주	19,126	1.2	2,737	-11.6	420	-61.2	1,401	233.6	2,904	-8.9
중동	1,805	46.9	405	7.7	345	148.2	331	-4.1	815	101.2
아프리카	6,843	7.3	1,817	2.7	303	-34.7	458	51.2	1,225	-32.6

자료 : 일본 재무성, * 전기비

□ (특이점)

-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가속화, 연간으로 전년의 2배인 11조에 달하여 과거 최고를 기록
 - 인구감소와 국내시장의 축소 하에서 해외 성장시장을 겨냥한 금융 및 물류 관련 일본 내수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형 M&A, 엔저에 따른 엔화환산 금액의 증가가 매수액 증가로 이어짐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억 총활약 플랜

- 일본정부가 5월 18일 여성과 고령자들이 일하기 쉬운 사회를 목표로 「1억 총 활약 플랜」을 발표
 - 1억 총활약 플랜은 신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동일 노동·동일 임금제 도입과 보육사의 임금인상 등 근로방식을 개혁함으로써 가속화하는 인구감소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임
 -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개선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2019년부터 운용하고, 노동계약법, 파트타임노동법, 노동자파견법 등 관련법의 개정도 2018년까지 마칠 계획임

□ (주요 내용)

- 동일노동/동일임금에 정사원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유럽수준으로 축소
 - 풀타임노동자(정규)에 대한 파트타임(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은 75% 수준으로(프랑스 89%, 독일 79%보다 낮음), 일본 정

- 부는 이를 80% 정도로 인상 목표
- 시간외 노동시간에 대하여 유럽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수준을 목표
- 최저임금을 연간 3% 인상, 전국 평균시급 1,000엔을 목표
- 계속고용이나 정년 연장 등 고령자고용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
- 보육사 급여를 2017년부터 월 6,000엔, 경험자는 월 4만엔 인상
- 학동보육(방과 후 아동클럽)의 수용규모에 대하여 2019년 말까지 30만 명을 늘림
- 간병지원 급여를 2017년부터 월평균 1만엔 정도 인상
- 급여형 장학금은 재원이나 공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검토
- 명목 GDP 600조엔을 2021년까지 달성
- 희망출생률 1.8, 간병이직 제로를 2025년까지 달성

□ (평가)

- 기업의 근로방식 개혁을 지원하는 정책을 더욱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임
 - 노동규제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손질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가 요구
-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 일본의 파트타임임금은 정사원을 중심으로 한 풀타임노동자의 60%에 그쳐, 80-90%의 유럽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처우향상은 의의가 있음
 - 다만, 전제로서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이므로 근로자가 스스로의 생산성향상 분만큼 임금이 상승하는 형태가 아니면, 기업에 의한 처우개선은 오래 계속될 수 없음
 - 비정규노동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직업훈련을 충실히 하는 데도 정부는 주력해야 함

○ 장시간 노동 시정 관련

- 장시간노동의 시정책은 충분하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음
- 노동기준감독기관의 출입조사시의 잔업시간을 한 달에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이러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
-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독일이 1,300시간, 프랑스가 1,400시간에 비하여 일본의 정사원은 2,000시간으로 매우 높음
- 장시간노동의 악영향은 심각함
-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여성의 60%가 이직하는 현실이고, 관리직으로의 승진을 주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음
- 남성이 양육이나 가족의 간병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데도 장시간의 잔업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간외노동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이 필요함
- 일정한 규제강화는 필요함. 현재는 노사협정을 체결하면 시간외나 휴일노동이 인정되나, 정부가 이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함
- 특별조항이 있는 협정이라면 월 45시간을 초과한 시간외노동이 가능한데, 이 점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되는 동시에, 신속적인 근로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규제개혁도 장시간노동을 줄이는데 필요함

○ 시급 등 관련

-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탈시간급」 제도를 신설하는 노동기준법개정안을 조기에 성립시켜야만 함
- 기업과 사원에게 다양한 근로방식의 선택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제완화와 강화를 적절히 잘 조합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함

○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 고령자들의 취로지원으로서 65세 이상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조성금을 확충하는 것임

- 그러나 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용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나올 우려도 있음
- 정년 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시스템만이 아니고 정년 전을 포함하여 별도의 기업이나 직종으로 옮겨 일을 계속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이에 좋은 인력들이 수요가 있는 분야에 옮겨가기 쉬운 유연한 노동시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직지원 등 인재서비스를 활발하게 하는 직업소개 대한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함

○ 보육, 간병 관련

- 정부는 보육의 수용규모를 2017년까지 50만명 분을 정비, 보육사와 간병사에 대한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기로 결정하였으나,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
- 처우개선에는 민간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간병의 경우에는 보험 외 시장을 개발, 사업자의 창의개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음
- 보육도 주식회사 등의 참여를 촉진하여 경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보육사의 임금을 높여갈 수 있음

○ 이번 플랜에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임금상승과 고용이 실현되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정규, 비정규직이나 연령 등의 차이를 물을 필요는 없음

- 이 점을 정책의 중심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1억 총활약은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음

Ⅳ.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3개월만에 감소

□ (총 합)

- '16.4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비 113백만 달러 감소한 2,037백만 달러

- 대일수입 감소가 대일무역적자 감소에 기여

- 4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8%에서 4.4%로 저하됨과 동시에, 대일 수입의 의존도도 전월의 12.7%에서 11.8%로 저하**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 의존도는 전월의 8.2%에서 7.6%로 저하**

〈2016년 4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6. 3월			2016. 4월			2016. 1-4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051	-3.6	20.6	1,775	-25.4	-13.5	7,319	-16.4
대일 수입	4,200	-4.2	23.3	3,812	-10.9	-9.2	14,509	-11.1
무역 수지	-2,150	-106	400	-2,037	141	-113	-7,190	-376

자료 : 한국무역통계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6. 3월	-3.6	20.6	-8.1	19.2	-14.9	3.6
2016. 4월	-25.4	-13.5	-11.2	-4.6	-23.3	-11.2
2016. 1-4월	-16.4	-	-12.8	-	22.3	-

〈2016년 4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6. 3월			2016. 4월			2016. 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2,051	-3.6	20.6	1,775	-25.4	-13.5	7,319	-16.4
1	철강제품	260	-1.7	12.6	217	-12.9	-16.5	931	-8.4
2	전자부품	169	-21.8	26.1	142	-24.1	-16.0	591	-23.9
3	광물성연료	112	-43.8	-9.7	129	-59.2	15.2	555	-52.8
4	수송기계	117	10.4	28.6	108	9.6	-7.7	452	11.9
5	석유화학제품	88	-12.9	-1.1	106	-17.1	20.5	361	-18.7
6	정밀화학제품	121	-1.5	21.0	101	-16.6	-16.5	420	-7.6
7	기계요소공구·금형	100	19.0	14.9	84	1.0	-16.0	354	12.6
8	금속광물	63	-22.6	-22.2	83	-16.2	31.7	304	-9.9
9	산업용전자제품	111	-44.0	20.7	83	-74.7	-25.2	384	-59.8
10	농산물	84	3.2	16.7	74	-20.5	-11.9	289	-13.0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6. 4월 대일 수출은 1,775백만 달러로 13.5% 감소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출 감소율 4.6%, 일본의 수입감소율 11.2%를 상회하는 감소폭임
- 전월과 비교하여, 중전기기가 10대 품목에서 빠지고 금속광물이 포함된 된 것이 특징인 가운데, 광물성연료와 석유화학제품, 금속광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수출이 감소
 - 대일 수출증가품목 중에서는 금속광물의 수출증가폭이 31.7%로 가장 큼
 - 대일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의 수출 감소폭이 -25.2%로 가장 큼

□ (대일 수입)

- '16.4월 대일수입은 3,812백만 달러로 전월비 9.2% 감소
 -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의 감소율 2.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반영
- 전월과 비교하여 산업용 전자제품과 기초산업기계간 수입순위가 바뀐 가운데, 플라스틱 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감소
 - 정밀기계의 대일수입감소폭이 -27.3%로 가장 큼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6. 3월	-4.2	23.3	-13.9	14.2
2016. 4월	-10.9	-9.2	-14.9	-2.8
2016. 1-4월	-11.1	-	-15.9	-

〈2016년 4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6. 3월			2016. 4월			2016. 1-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 계	4,200	-4.2	23.3	3,812	-10.9	-9.2	14,509	-11.1
1	전자부품	626	18.9	47.6	555	0.7	-11.3	2,029	-3.5
2	철강제품	440	-18.7	14.0	412	-25.8	-6.4	1,618	-24.4
3	정밀화학제품	363	-4.5	11.0	351	-3.7	-3.3	1,328	-1.7
4	석유화학제품	333	-26.5	14.0	326	-32.9	-2.1	1,236	-27.8
5	산업용전자제품	285	15.5	14.9	276	6.1	-3.2	980	9.0
6	기초산업기계	293	6.1	16.7	265	-1.6	-9.6	1,019	-0.9
7	정밀기계	286	-16.4	43.0	208	-17.5	-27.3	854	-25.5
8	수송기계	226	5.3	32.9	196	-1.9	-13.3	773	-7.0
9	플라스틱제품	190	-9.6	9.2	191	-8.5	0.5	729	-10.3
10	산업기계	199	-6.1	12.4	185	-6.2	-7.0	691	-0.7

자료 : 한국무역통계

2.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

- (동향) '16.1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 감소로 반전
- '16.1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161백

- 만 달러로 전기비 65.8% 감소
- 전년동기비로도 44.3% 감소
- 건수로도 전기비 22.8% 감소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도 전기비 44.5% 감소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2014		2015		2015.2분기		2015.3분기		2015.4분기		2016.1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352 (21.3)	2,488 (-7.5)	315 (-10.5)	1,665 (-33.1)	84 (-0.2)	684 (136.7)	67 (-20.2)	222 (-67.5)	79 (17.9)	470 (111.7)	61 (-22.8)	161 (-65.8)
전체 외국인투자	2,463 (-5.6)	19,003 (30.6)	2,698 (9.5)	2,0909 (5.1)	742 (33.0)	5,316 (49.5)	624 (-15.9)	4,399 (-17.2)	774 (24.0)	7,639 (73.7)	667 (-13.8)	4,241 (-44.5)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

- (주)트라이텍스가 안산 반월공단 내에 트라이텍 코리아 공장 설립을 위한 2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경기도와 체결
- (주)트라이텍스는 일본 제조업의 중심지인 중부지역 나고야 인근에 본사를 두고, 기계 자동화 장치 설계 및 각종 산업·공작용 기계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2016.5.24. 부천신문)
- 일본 쓰바키모토체인인의 한국법인 한국쓰바키모토오토모티브가 총 투자비 148억 원을 들여 부산진해 경제구역에 4,553㎡ 규모의 제 2공장을 건설, 2016년 10월 완공예정

- 쓰바키모토체인사는 자동차 엔진부품인 타이밍체인 분야에서 일본 국내시장의 약 70%, 전 세계 시장의 약 33%를 점유(2016.4.21. 파이낸셜 뉴스)

□ (시사점)

- 최근의 엔고, 일본 해외투자기업들의 유턴사례,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 등을 대한 투자 유도에 최대한 활용하고, 한일간 정치적 교착상태 완화 등을 통한 차별화된 대한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

한일경제협회 신규가입 회원사

상임이사

■ (주)투어2000



양무승 회장

- 설립 일 : 1999년 3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종업원수 : 170여명
- 업종 : 일반여행업
- U R L : www.tour2000.co.kr

■ (주)대한항공



조원태 총괄부사장

- 설립 일 : 1969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종업원수 : 18,450여명
- 업종 : 항공운송업
- U R L : www.koreanair.co.kr

일반회원사

■ (주)한영닉스



한영수 회장

- 설립 일 : 1972년 10월
- 소재지 : 인천광역시
- 종업원수 : 300여명
- 업종 : 기계
- U R L : www.hynu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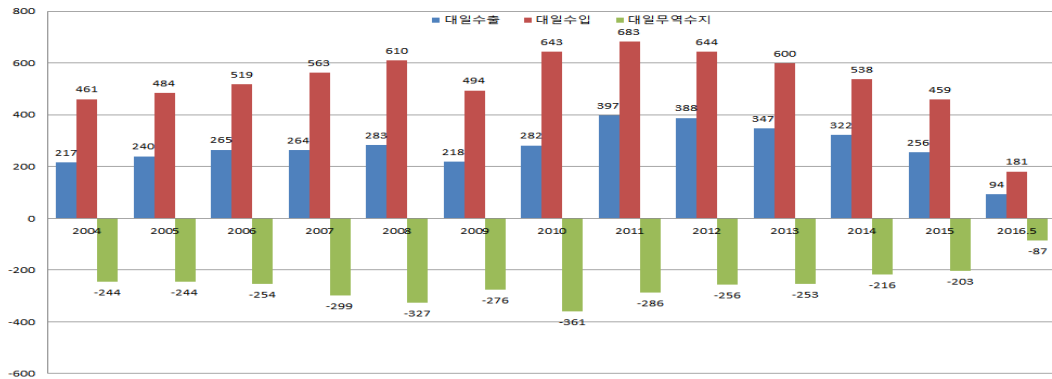
■ 보문(주)



이종애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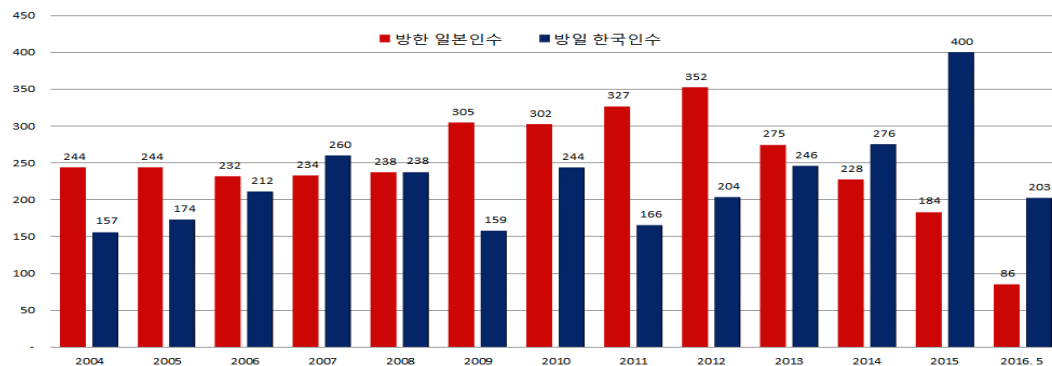
- 설립 일 : 1990. 12. 18
- 소재지 : 대전광역시
- 종업원수 : 8명
- 생산품 : 전기전자
- U R L : www.bmec.co.kr

한일 교역 현황 : 對 일본 연도별 수출입 실적('04~'16.5)/(단위 : 억불)



구 분	총수출 (A)	총수입 (B)	총교역액 (C=A+B)	대일수출 (D)	대일수입 (E)	총대일교역 (F=D+E)	대일수출비중 (G=D/A)	대일수입비중 (H=E/B)	대일무역수지 (I=D-E)
2004	2,538	2,245	4,783	217	461	678	8.5%	20.6%	-244
2005	2,844	2,612	5,456	240	484	724	8.4%	18.5%	-244
2006	3,255	3,094	6,348	265	519	785	8.2%	16.8%	-254
2007	3,715	3,568	7,283	264	563	826	7.1%	15.8%	-299
2008	4,220	4,353	8,573	283	610	891	6.7%	14.0%	-327
2009	3,635	3,231	6,866	218	494	712	6.0%	15.3%	-276
2010	4,664	4,252	8,916	282	643	925	6.4%	15.1%	-361
2011	5,552	5,244	10,796	397	683	1,080	7.2%	13.0%	-286
2012	5,479	5,196	10,675	388	644	1,032	7.1%	12.4%	-256
2013	5,596	5,156	10,752	347	600	947	6.2%	11.6%	-253
2014	5,726	5,255	10,981	322	538	860	5.6%	10.2%	-216
2015	5,268	4,365	9,633	256	459	715	4.8%	10.5%	-203
2016.5	1,964	1,586	3,550	94	181	275	4.8%	11.4%	-87

한일 인적교류 현황 : 對 일본 연도별 출입국 실적('04~'16.5)/(단위 : 만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5
방한 일본인수	244.3	244.0	232.0	221.6	235.8	303.2	300.4	327.0	351.8	274.8	228.0	183.8	86.0
방일 한국인수	156.9	173.9	211.7	260.1	238.3	158.7	241.5	165.8	204.4	245.6	275.5	400.2	203.6
계	401.2	417.9	443.7	481.7	474.1	461.9	541.9	492.8	556.2	520.4	503.5	584	289.6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회원가입안내

1. 개요

한일경제협회(www.kje.or.kr)는 자매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www.kjc.or.kr)과 함께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립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한일 양국 경제인의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구축은 물론 활발한 인적교류 등 민간에 의한 경제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 회원 자격

우리협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해와 협조 및 친선을 위하여 유대를 갖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국내외 개인, 법인 및 단체

3. 회원가입 및 회비

- 회원가입 :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회비와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회비구분

구 분	전년도 매출액기준	입회비	년회비
일반회원사	50억 이상	10만원	80만원
	50억 미만	10만원	20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424-04-104432 한일경제협회

4. 중점사업

- 한일경제인회의 사업 (년 1회)
-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년 1회)
-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교류협력 사업 (한큐슈, 한호쿠리쿠, 한황해경제교류)
- 한일청소년(고교생교류캠프)교류 사업
- 기타 한일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한일통상포럼, 업종별 교류회 등)
- 회원사 간담회 (주일대사초청간담회, SJC와의 간담회, 친선교류활동 등)

5. 회원사 특전

- 협회주최 및 자매기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연구조사, 보고서 제공
- 협회 소식지 및 일본정보[지식리포트] 제공
- 협회 보유자료 열람
- 일본기업 소개·비즈니스 정보·신기술동향 등의 일본기업정보 제공 (수시)
-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지도, 일본연수 사업 참여

6. 문의처

- 060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 18-4(논현동) 한일재단B/D 4층
김정호 부장 (TEL: 02-3014-9886 E-mail: jhkim@kje.or.kr FAX: 02-3014-9899)

회원가입신청서

회사(기관)명			
대 표 자	(한글)	(한문)	
	(직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우		
T E L	(대표)	(비서실)	
F A X	(대표)	(비서실)	
E - mail	(대표)	(비서실)	
U R L	http://	창 립 일	년 월 일
자산 총액	억원	자 본 금	억원
전년도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주생산품			
업 종 ※ 해당되는 업종 앞에 하나만 √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 광업	기계	운수창고	
섬유, 의복	전기전자	통신업	
종이, 목재, 출판	전기장비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	
화학	의료정밀	지주회사	
의약품	운수장비	법무, 회계	
고무, 플라스틱	전기가스	기타 서비스업	
비금속광물	건설업	경제단체, 공공기관 등	
철강, 금속	유통업	그 외 업종()	

〈담당 관리부서〉

부 서 명		TEL	
담 당 자	(성명)	FAX	
	(직위)	E-mail	

본인은 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동의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회사명(단체명) :

대표자 : 인

(사)한 일 경 제 협 회 귀중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E-mail : jhkim@kje.or.kr) 송부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060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 18-4(논현동) 한일재단B/D 4층 (FAX : 02-3014-9899)